

26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5460.46 (-181.75)	1136.64 (-22.91)
금리 (연율)	환율 (원/달러)
3.552 (-0.006)	1504.05 (+4.36)



물가·성장·환율·부채·부동산·전쟁까지 한은, 복합적 리스크에 통화정책 선행법 '골머리'

한국은행이 국내 금융시스템을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진단하면서도 중동발 시장불안과 취약부문 부실, 수도권 집값 리스크를 동시에 경계했다. 물가와 성장뿐 아니라 환율 변동성, 가계부채, 부동산시장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국면이 이어지면서 향후 통화정책 판단이 한층 복잡해졌다는 평가다.



장정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2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 상황(2026년 3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26일 한은이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금융불안지수(FSI)는 지난 2월 15.3으로 '주의단계'에 머물렀다. 이는 위기 수준은 아니지만 금융시장 전반에 긴장 요인이 상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지난해 4분기 말 48.1로 장기평균(45.4)을 웃돌며 금융불균형이 여전히 누적된 상태임을 보여줬다. <관련기사 3면>

한은, 금융불안지수 '주의단계' 위기는 아니지만 긴장요인 상존
자영업자 대출연체 1.86% 달하고
1900조 '가계부채', 집값 상승 등
잠재 리스크 동시다발적 확대

세부적으로 보면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되는 양상이다. 원·달러 환율은 올해 들어 1400원대 중후반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높은 변동성을 나타냈고, 외국인 자금 유출입도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국제유가 상승과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동시에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국내 금융시장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은은 국내 금융시스템이 양호한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과 외환보유액 등 대외지급능력을 바탕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취약부문 부실은 점차 현실화되는 흐름이다. 기업대출은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에 그쳐 성장세가 둔화됐다. 이는 고금리 장기화와 투자 위축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 부실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1.86%로 장기평균을 상회했고,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2.14%에 달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부채와 금리 상승 부담, 소비 회복 지연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가계부채 역시 통화정책의 핵심 변수

로 꼽힌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2024년 말 기준 약 1900조원 수준으로 GDP 대비 비율이 10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부동산시장 역시 정책 판단을 어렵게 만드는 핵심 변수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공급 대책 등으로 주택가격 상승 기대는 다소 완화됐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2월 기준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전국 0.23%, 수도권 0.42%, 비수도권 0.06%로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일부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재개되면서 시장의 기대심리가 완전히 꺾이지 않았다는 평가다.

문제는 이 같은 변수들이 서로 맞물려 정책 딜레마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물가 안정만을 고려하면 금리 인하 여지가 있지만,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감안하면 완화적 정책으로 전환하기 어렵다. 반대로 금리를 높은 수준에서 유지할 경우 자영업자와 취약 차주의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금융안정 상황의 핵심은 '현재의 위기'보다는 '잠재된 리스크의 동시다발적 확대'에 있다. 겉으로는 금융시스템이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외부 충격과 내부 취약성이 결합될 경우 리스크가 빠르게 현실화될 수 있는 구조다.

장정수 한은 부총재보는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중동 상황 발생 이후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장·양극화에 따른 취약부문 부실 및 자금조달 리스크, 수도권 주택가격의 추격적 안정 여부를 함께 거론하며 "정책 공조를 통해 대응해 나갔"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전기요금 웬만하면 유지... 사용 절감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전기요금은 웬만하면 지금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려 한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전기 사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통해 "전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조금 특별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면서 "전기는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완전히 독점 공급을 하고 있고, 반대로 말하면 정부가 100% 책임을 지고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통해 "전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조금 특별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면서 "전기는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완전히 독점 공급을 하고 있고, 반대로 말하면 정부가 100% 책임을 지고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편으로 전기요금을 과거 그대로 묶어두니까 전기 사용이 오히려 늘어나거나, 예를 들면 유류 대신에 전기를 쓰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한전의)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정부 재정 손실도 문제고, 과도한 에너지 낭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한전의 부채가 200조라 한다.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그 점을 고려해서 에너지 절감에, 특히 전기 사용 줄이기에 많이 참여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관련기사 2면>

이 대통령은 이번 중동 사태와 관련해 국제에너지기구가 1970년대 2차례 있었던 오일쇼크나 2022년 러-우전쟁의 충격을 합친 것보다 심각하다고 평가한 것을 언급하면서 "특히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위험의 위치와 파급 정도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이번 위기는 '공동의 도전'이라면서 차량 5부제나 대중교통 자발적 이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에게 단번의 상황을 반전시킬 해법은 없지만 그럴수록 더욱 지혜를 모으고 고통을 나누는 연대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공공부문은 차량 5부제를 비롯해서 슬루션을 모색해야 되겠다, 국

민 여러분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에너지 절약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27일부터 시행되는 정유사 공급기에 대한 2차 최고가격제에 대해선 "일선 주유소 역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가격 책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서 담합, 매점매석 등으로 부당이익 취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정부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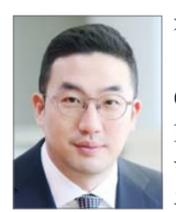
이날 회의는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다.



/서예진 기자 syj@

LG, 'AI전환' 핵심과제... 사외이사 중심체제 전환

(주)LG 이사회 의장에 박중수 교수 정기주총 통해 상정안건 모두 의결
상장사 11개 모두 사외이사 의장 체제



장 체제로 개편됐다.

이번 결정으로 (주) LG를 비롯해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등 그룹내 11개 상장사가 모두 사외이사 의장을 맡는 구조를 갖추게 됐다. 이 중 LG전자와 LG이노텍, LG화학 등 3개 사는 여성 사외이사 의장을 맡아 이사회의 다양성을 높였다.

구 회장은 메시지에서 "지난해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원가 상승, 고물가·고환율이 겹치며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한 해였다"며 "올해 역시 지정학적 변동성과 산업 간 경계 붕괴로 사업 환경의 난이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투자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별 기술력을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선도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AI 전략도 구체화했다. 구 회장은 "LG만의 독자 AI 모델을 고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 사업의 AI 전환을 가속화해 실질적 성과로 연결하겠다"며 "AI

를 중장기 지속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LG 주요 계열사들은 주총 시대를 거치며 로봇, AI 데이터센터, 스마트 팩토리, 피지컬 AI 등으로 사업 확장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다. 지주사 차원의 전략이 계열사 투자와 사업 재편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는 점에서 이번 메시지의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주주 가치와 관련한 메시지도 나왔다. 구 회장은 "사업 성장이 주주 가치 제고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검토하고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총에서는 지배구조 변화와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소액주주가 이사회 의장직을 사외이사로 전환한 배경을 묻자, 권 부회장은 "최근 법·제도 변화가 소액주주 권익과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사외이사 의장 체제가 이사회 투명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메트로 한줄뉴스



- ▲정원오, '시니어 복지' 공약 발표... "살던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강화" /사진 뉴시스
- ▲국힘, 兇 조희대 탄핵 추진에 "잇을 만하면 탄핵 타령... 설득력 없어"

- ▲권영진 "주호영, 경고용 탈당 가능성...국힘 컷 오프로 대구 민심 돌아서"
- ▲국힘 혁신파·친한계, '장애인 비하' 박민영 재임명에 "장동혁 사퇴하라"

- ▲전현희 "7만석 '서울동·아레나' 건립해 산업 대전환"
- ▲이명박 전 대통령, 천안함 46용사 모역 참배...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

LG전자, OLED 기술 고도화... 글로벌 TV 시장 잡는다

‘더 넥스트 OLED’ 화질 구현
밝기·컬러·빛 반사 대폭 개선
“프리미엄 제품 경쟁력 강화”

LG전자가 ‘더 넥스트 OLED’를 앞세워 밝기와 빛 반사를 동시에 개선한 차세대 TV로 프리미엄 시장 재편에 나섰다.

LG전자는 25일 제품 공개 간담회를 열고 2026년형 TV 신제품을 공개했다. 신제품은 ▲LG 올레드 에보(evo) ▲LG 마이크로 RGB 에보(evo) 두 라인업으로 구성됐다.

백선필 LG전자 디스플레이 CX담당은 “밝기와 컬러를 개선하고 빛 반사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등 화질 전반을 끌어올려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했다”며 “OLED를 중심으로 시장 주도권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신제품은 밝기·컬러·빛 반사를 동시



모델들이 빛 반사를 획기적으로 줄여 최신 올레드 TV의 화질을 있는 그대로 즐길 수 있는 신제품을 체험하고 있다. /LG전자

에 개선한 ‘더 넥스트 OLED’ 화질을 구현했다. 일반 OLED(B6) 대비 최대 3.9배 밝기를 구현했고 ‘하이퍼 래디언트 컬러’ 기술로 색 정확도를 높였다. 여기에 초저반사 기술 ‘리플렉션 프리 프리

미엄’을 적용해 빛 반사도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

밝은 실내 환경에서도 퍼펙트 블랙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LG전자에 따르면 500룩스 환경에서 블랙 휘

도는 0.02~0.03니트 수준으로 기준치(0.24니트 이하)를 크게 밑돌았다.

LG전자는 이날 국내를 시작으로 신제품을 글로벌 시장에 순차 출시한다. W6와 마이크로 RGB TV도 상반기 선보일 예정이다.

가격은 OLED가 프리미엄 제품군임에도 소비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형성된다. 국내 출하가는 65형 기준 329만~379만원, 77형 기준 569만~870만원, 83형 기준 790만~1300만원 수준이다.

백 담당은 “현재 글로벌 OLED 시장에서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60~70%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며 “전체 공급이 크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도 충분한 물량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LG전자는 보급형 확대도 병행한다. SD 패널 기반 제품으로 가격 접근성을 높이고 퍼펙트 블랙과 컬러 등 핵심 성

능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에서는 신개념 홈 오디오 시스템인 ‘LG 사운드 스위트 AI’ 체험이 진행됐다. 프리미엄 TV에 LG 사운드 스위트 연동함으로써 공간 맞춤형 입체 음향을 구현했다. 프리미엄 TV에는 스피커를 자유롭게 배치해도 위치를 감지하는 ‘돌비 애트모스 플렉스 커넥트’가 지원된다. 이에 복수 기기 연결 시 음향의 밀도가 확연히 개선되면서 극장과 같은 공간감도 경험할 수 있다.

생성형 AI 기반 콘텐츠 기능도 공개됐다. 사용자가 장르와 분위기를 선택하면 맞춤형 음악과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는 파티 분위기를 반영한 이미지와 음악이 동시에 구현됐다. web OS26에는 코파일럿과 제미니를 탑재해 멀티 AI 기반 개인 맞춤형 기능도 강화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차 석유제품 최고가격 공개... 휘발유 1934원

(정유사 공급가 기준)

1차 대비 유종별 리터당 210원 인상
유류세 인하폭 확대... 5월말까지 적용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 2차 고시를 통해 중전 1차 고시보다 유종별 리터당 210원씩 인상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주부터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2000원을 넘을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26일 민생물가특별관리관계장관 TF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을 공개하고, 27일 0시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이는 1차 차고가격 대비 각각 210원씩 인상된 수준이다.

산업부는 이번 최고가격에 대해 “1차 최고가격에 국제가격 상승률을 반영하고, 그외 추가적으로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금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유가 상승 부담 경감을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대폭 확대하고, 이를 2차 최고가격에 반영했다. 휘발유는 유류세 인하분을 7% → 15%로 확대해 리터당 65원 인하, 경유(10% → 25%)는 리터당 87원 인하 효과가 발생했다. 등유의 유류세는 현재 법정 최대치인 30%로 인하한 상태다.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는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이번 최고가격은 기존에 적용되던 보통휘발유, 자동차용 경유, 실내 등유에 어민 경영부담을 고려해 ‘선박용 경유’도 대상 유종에 추가했다.

이번 최고가격은 정유사 공급가 기준으로, 주유소 판매가격은 이보다 높아진다. 유류소별 현재 보유한 석유제품이

소진을 감안하면 이르면 내주부터 주유소 판매가격은 리터당 2000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에너지 수급관리를 위해 현재 70% 대인 원전 가동률은 80% 이상으로 높이고, 석탄발전 상한 제약(80%) 해제, 석탄발전소(2기) 폐지 시기 연장 등도 추진한다. 카타르산 LNG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해 ‘LNG 스와프’ 등을 추진하고, LNG 발전은 최소화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는 엄격 단속하고 민간은 자율 5부제 시행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공영주차장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대중교통 요금할인을 검토하고 공공-대기업 사차출퇴근, LNG발전 급증시간대 전기 사용자 등 캠페인도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자율주행 산업, 데이터 선순환 구조에 성과”

국제 e-모빌리티 엑스포

유병용 “핵심은 다양한 상황 대응 능력”
정하욱 “데이터 플라이 휠’ 돌아가야”

자율주행 산업의 경쟁력의 성과는 데이터 수집, 인공지능(AI) 학습, 모델 개선, 검증으로 이어지는 ‘데이터 선순환 구조’에 달려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행환경에서의 데이터를 확보해 기술 고도화로 이어가는 것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26일 제주 신화월드에서 열린 제13회 국제 e-모빌리티 엑스포에서 열린 ‘피지컬 AI의 진화: 자율주행차, 자율운항 선박과 로봇’ 세미나에는 자율주행, 해운·조선, AI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피지컬 AI 기술 진화에 따른 산

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조명했다.

유병용 A2Z 부사장은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이 국가별로 차이점은 있지만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가고 있다고 소개하며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을 데이터로 축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율주행 기술 경쟁의 핵심은 다양한 돌발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이다”며 “청계천 등 돌발 변수가 많은 장소에서의 주행으로 데이터를 축적해 기술 고도화를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율주행 AI업체 라이드플렉스 정하욱 부대표는 “데이터 플라이 휠’이 지속적으로 돌아가야 기술이 고도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이 다양한 분야로 확장성을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성운 기자 ysw@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
고양특례시

고양국제꽃박람회

International Horticulture Goyang Korea 2026

꽃, 시간을 물들이다

4.24(금) ~ 5.10(일)

일산호수공원

고양국제꽃박람회재단
Goyang International Expo Foundation

“금융시스템 대체로 안정... 중동·취약부문·집값 경계”

한은,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

FSI 주의단계, 취약성은 평균 상회 중동 여파에 환율 급등·증시 조정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 12%대 지속 가계·기업 대출 증가세는 둔화 시장불안 땀 정부와 공조 대응

한국은행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도 국내 금융시스템이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중동발 외환·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취약 부문 부실, 수도권 주택가격발 금융불균형 누증 가능성은 여전히 경계해야 할 위험요인으로 지목했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금융시스템의 단기 불안 정도를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는 지난 2월 15.3으로 주의단계에 머물렀다. 중장기 취약성 정도를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지난해 4분기 말 48.1로 장기평균 45.4를 웃돌았다.

장정수 부총재보는 이날 설명회에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며 “중동 상황 발생 이후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이번 보고서에서 잠재 리스크를 네 갈래로 제시했다.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 통화정책 기대 변화, AI 버블 경계감 등에 따른 자산가격 조정과 머니부브 ▲외환·금융시장 변동성 ▲성장 양극화와 자금조달 애로가 겹쳐 취약부문 부실이 확대 등이다. 여기에 기업부문 간 자금조달 여건 차별화와 수도권 집값 상승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증 위험도 함께 거론했다.

신용시장에서는 가계와 기업 모두 증가세가 둔화됐다. 2025년 4분기 가계신



(왼쪽부터) 유재현 국제기획부장, 이정연 금융안정기획부장, 장정수 부총재보, 임광규 금융안정국장, 김정호 안정총괄팀장이 2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안정 상황(2026년 3월)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행

용은 주택관련 대출 증가폭 축소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증가율이 0.7%로 낮아졌다. 소득 대비 가계신용 비율도 140.9%에서 139.8%로 하락했다. 기업대출은 같은 기간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하는데 그쳐 낮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임광규 금융안정국장은 “가계 신용은 증가세 둔화 흐름이 지속되면서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기업 신용도 비교적 낮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취약부문 리스크는 이번 보고서의 핵심 경계축으로 제시됐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025년 말 1.86%로 장기 평균을 웃도는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2.14%에 달했다. 취약 자영업자 대출 규모도 114조 6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1조1000억원 늘었다.

김정호 안정총괄팀장은 “취약차주 비중 재상승과 관련해 신용회복 지원 효과가 일회성에 그쳤다고 보긴 어렵다”며 “향후 금리나 시장금리 여건에 따라 연체율이 다시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산시장과 대외부문에선 숫자로도 변동성 확대가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 중반에서 등락하다가 중동상황 발생 이후 상당폭 상승했다. 외국인 국내 증권투자자금도 2월

이후 6개월 만에 순유출로 전환됐다.

임 국장은 “주기는 사상 최고치를 잇따라 경신하다가 중동 상황 발생 이후 큰 폭 조정되는 등 변동성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라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 역시 안심하기 이르다는 분석이다. 수도권 주택매매가격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여전히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는 2월 들어

약화됐다. 다만 미분양 주택은 6만7000호, 준공 후 미분양은 3만호로 장기평균을 웃도는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장 부총재보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약화되었으나 부동산시장의 추세적인 안정 여부를 계속 지켜봐야 한다”며 정책 공조를 통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한은은 중동 리스크 장기화가 금융안정 상황의 최대 변수라고 보고 있

다. 이수형 금융통화위원은 별도 메시지에서 현재 우리 경제가 “물가의 상방위험과 성장의 하방위험이 모두 높아진 복합적인 도전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취약부문 자금조달 애로와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번지지 않도록 선제적 모니터링과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유동성 대응능력 강화”를 주문했다.

한은은 앞으로 외환·금융시장 움직임과 중동상황 전개 및 파급영향을 신중히 살피는 한편, 시장불안이 발생할 경우 적기에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실시하는 등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임 국장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장 부총재보도 “정책 공조를 통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취약 자영업자 대출부실 우려 “선별지원·구조조정 병행해야”

자영업자 대출 1092조대로 늘어 비은행권 연체율 3%대 후반 기록 취약 차주 대출잔액은 오히려 증가

한국은행이 취약 자영업자 부실을 이번 금융안정 상황의 핵심 리스크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최근 금리인하와 정부 지원정책 등의 영향으로 자영업자 연체율이 소폭 낮아졌으나,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이 여전히 12%대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선별 지원과 구조조정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86%로 장기평균(2012~2025년) 1.58%를 웃도는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특히 비은행권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3.64%,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은 12.14%에 달했다. 원리금을 연체한 자영업자 차주는 14만8000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차주의 4.6%였다. 이들이 보유

한 대출은 33조5000억원으로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3.1%를 차지했다.

대출 규모 자체도 여전히 크다. 자영업자 대출은 2025년 말 기준 1092조 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조1000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취약 자영업자 차주는 40만4000명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12.6%였다. 이들의 대출 규모는 114조 6000억원으로 전년말 113조5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 증가했다. 취약 차주 수는 줄었지만 대출잔액은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한은은 최근 흐름을 단순 악화로만 보지 않았다. 보고서는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그간의 금리인하 영향과 정부 지원정책, 서비스업 업황 회복 등으로 연체율도 소폭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주요국 대비 자영업자 비중이 여전히 높고, 연체율도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봤다.

/김주형 기자



metro

KB 금융그룹 | 국민의 자산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Tuesday Wednesday Thursday

2 3 4

9 11

16 18

23 24 25

**KB 손해보험이 지키는
1년 365일 든든한 일상!**

**일상을 지키는 힘
KB 손해보험**

KB 손해보험

車 생산 넘어 AI 기술 기업으로... 자율주행·로봇 등 속도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

자율주행 기술로 혁신 경험 제공
韓 AI 데이터센터 등 경쟁력 확보
구글·엔비디아와 피지컬 AI 협력
완성차 현지화·지역특화 전략 제시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이 26일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개최된 제58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미래 사업 전략을 공유하고 있다. /현대차

현대자동차가 미국 고율 관세와 환율 변동, 중동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기술 기업으로 전환에 속도를 높인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은 26일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개최된 제58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단순 자동차 제조업체를 넘어 AI, 자율주행, 로봇틱스 등 기술 기업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높여왔다고 밝혔다.

무뇨스 사장은 “단순히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을 넘어, 이를 생산하고 움직이게 하는 지능형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으로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가속화해 더 많은 차량에서 혁신적인 주행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엔비디아와 협업, 포티투닷 및 모셔널에 대한 투자, 웨이모

와 파트너십, 그리고 한국 내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기술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넘어 로봇틱스 분야에서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무뇨스 사장은 “보스토탄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를 실제 생산 현장에 투입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고 2028년까지 연간 3만대 규모의 로봇 생산 체계를 구

축할 계획”이라며 “구글 딥마인드와 엔비디아의 피지컬 AI 인프라 협력을 통해 압도적 기술 생태계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동 전쟁 장기화로 올해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 완성차 업체와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주영 창업회장의 도전 정신을 이어가며 협력사와 ‘원 팀’으로 협력해 위기를 기

회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무뇨스 사장은 올해 경영전략으로 현지화 전략 강화, 지역별 특화 상품 전략 강화, 기술 기업 전환 가속화를 제시했다.

그는 “미국에서 하이브리드차(HEV) 생산이 시작되고, 인도·사우디아라비아·베트남에 신규 생산 거점을 구축해 그룹사 기준 2030년까지 글로벌 생산능력을 연 120만대로 확대하겠다”며 “단순 현지 생산을 넘어 현지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상품 개발까지 포함하는 진정한 현지화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중국에서 향후 5년간 20종의 신차를 출시하고, 전용 전기차인 일렉시오 SUV에 이어 올해 신형 세단 전기차를 선보인다. 북미에서는 투싼과 엘란트라를 출시하고 2027년부터는 주행거리연장형 전기차(EREV)를 선보일 방침이다. 2030년 이전 중형 픽업트럭도 출시한다.

유럽에서는 아이오닉3 공개를 시작으로 향후 18개월 동안 5종의 신규 모델을 출시한다. 인도에서는 2027년 최초로 현지 설계, 개발한 전기 SUV를 공개하고, 2030년까지 50억달러의 투자해 푸네 신

공장 생산능력을 25만대로 확대한다. 아울러 향후 10년간 26개 신모형을 투입하고, 2027년에는 제네시스의 인도 진출도 검토한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해 글로벌 414만대 판매와 전년 대비 6.3% 증가한 매출 186조3000억원을 거뒀다. 영업이익은 11조4700억원, 영업이익률은 6.2%를 달성했다. 미국의 경우 연간 도매 기준 100만대 판매를 돌파했으며 북미 전체 소매 판매는 122만대에 달해 8% 증가했으며 5년 연속 소매 판매 신기록, 3년 연속 총 판매 신기록을 경신했다.

친환경차 전환도 성과를 냈다. 글로벌 친환경차 판매는 약 100만대로 늘었고, HEV와 전기차(EV)는 각각 28%, 26% 성장했다.

무뇨스 사장은 이 같은 실적을 기반으로 미래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030년까지 국내에 125조원을 투자하고, 미국에도 2028년까지 260억달러를 투입해 생산·공급망·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초 슈퍼사이클 주도권 잡고 글로벌 1등 기업 도약”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단순 호황 아닌 인프라 구조 변화
글로벌 핵심전략 시장으로 美 제시
데이터센터·직류 전환 핵심 공략



바뀌는변곡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 회장은 전력 시장이 기존 송·변전 중심 사이클을 넘어 데이터센터와 분산전원 확대 배전 시장이 성장을 이끄는 ‘초 슈퍼사이클’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LS일렉트릭은 배전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력과 사업 기반을 토대로 글로벌 시장 지배력 확대에 나선다. 기존 전력기기 공급 중심 사업에서 나아

가 전력 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솔루션·플랫폼 중심으로 영역을 넓혀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실적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LS일렉트릭은 지난해 매출 4조9658억원, 영업이익 4264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북미 매출은 1조원을 넘어섰고 수주잔고도 5조원 이상 확보했다.

글로벌 핵심 전략 시장으로는 미국을 제시했다. LS일렉트릭은 텍사스 베스트 컵 캠퍼스를 생산·기술·서비스 통합 거점으로 육성하고 유타 MCM에너지어링II

배전반 솔루션 생산설비 증설도 추진하는 등 현지 생산 기반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데이터센터 시장 공략에 힘을 쏟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력과 납기 경쟁력을 앞세워 단일 제품 공급을 넘어 고객 맞춤형 패키지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북미 시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투자 계획도 확정했다. 현지 생산 규모를 확대하고 주요 전력기기와 배전 솔루션의 현지 생산 비중을 높여 관세와 물류

리스크를 줄이는 한편 설계부터 생산, 납품, 운영까지 이어지는 엔드투엔드 체계 구축으로 경쟁력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미래 전력 시장의 핵심 축으로는 직류(DC) 전환을 꼽았다. 구 회장은 “미래 전력 경쟁력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기를 쓰느냐에 달려 있다”며 “직류는 전력 손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 전력 시장의 판을 바꾸는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과 정관 변경, 자기주식 보유·처분 승인, 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상정된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원관희 기자 wkh@ metro

“불확실성 장기화 속 경영 안정성 유지”

백종훈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

고기능성 합성고무 설비투자 완료
자사주 보유·처분 규정 정관 변경



백종훈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이 26일 서울 중구 시그니처타워에서 열린 제4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

금호석유화학이 글로벌 경기 둔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속에서도 원가 절감과 리스크 관리로 수익성을 방어하는 한편 핵심 사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 기반 확보를 통해 지속 성장에 나선다.

백종훈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는 26일 서울 중구 시그니처타워에서 열린 제4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지난해 글로벌 경기 둔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장기화로 석유화학 산업 전반에 수익성 압박이 지속됐다”며 “이 같은 환경 속에서도 전사적인 원가 절감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경영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이익 창출과 지속적 주주 가치 제고를 실현하겠다는 방침도 내

냈다.

금호석유화학은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기차 시장 확대와 고성능 타이어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고기능성 합성고무 솔루션스타이렌부타디엔 고무(SSBR) 병행 생산 설비 투자를 완료했으며 메틸렌 디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MDI)와 에틸렌 프로필렌 고무(EPDM) 증설 투자도 마무리해 핵심 사업 경쟁력과 성장 기반을 함께 강화했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촉발된 유가 상승과 공급망 불안이 부담 요인으로 떠오른 가운데서도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원재료 수급 다변화와 고객사 협력 확대를 통해 위기 대응력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과 정관 일부 변경,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상정된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특히 이번 정관 변경안에는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자기주식 관련 사항을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했지만, 변경안은 회사가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수립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경우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상법 개정에 따라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 대상이 되지만, 주주총회 승인을 거치면 예외적으로 계속 보유할 수 있다.

SKT, ‘정재현 대표이사 체제’ 공식화

1.7조 투입해 ‘비과세 배당’

SK텔레콤이 정재현 최고경영자(CEO)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며 ‘정재현 대표이사 체제’를 공식화했다.

SKT가 26일 서울 을지로 T타워에서 제42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다. 이번 주총에서 SKT는 실적 회복과 주주친화 정책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자본준비금을 활용한 비과세 배당 근거를 마련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주주환원 극대화 전략이다. SKT는 자본준비금 중 1조7000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주주들이 배당소득세(15.4%)를 내지 않아도 되는 ‘감액 배당’을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다. 해당 재원은 2026년 재무제표 확정 후 이르면 올해 기말 배당부터 활용될 전망이다.

또한 전체 발행주식의 0.84%에 달하는 자기주식 중 일부를 임직원 보상용으로 처분하고, 잔여분은 추후 이사회 의

결을 통해 소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사이버 침해 사고 여파로 배당이 축소됐던 점을 고려해, 실질적인 배당상향 효과를 주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재현 CEO는 “본연의 경쟁력을 가진 단단한 SK텔레콤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최근 40% 선이 무너진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에 대해 “MVNO(알뜰폰) 증가 등의 영향이 있었으나 올해는 다시 순증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라며 “연말에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정재현 CEO와 함께 한명진 MNO CIC장이 사내이사로, 윤풍영 SK 수퍼스추우협의회 담당 사장이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됐다. 한명진 사내이사는 통신 사업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AI 전환(AI) 과제 도출을 맡고, 윤풍영 이사는 그 룩과의 AI 시너지를 도모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seoh@ metro





IBK기업은행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내가 원하던 i-ONE의 등장

ALL NEW i-ONE Bank



준법감사인 심의필 제2025-7969호(2025.11.21) 유효기간(2026.11.20) ·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정, 25조 규모 추경 가닥... '취약계층·지방' 우선 지원

31일 국회 제출 뒤 내달 9일 처리
구직지원패키지 등 추경안에 포함
가정용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반영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에 정책위의장 등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동수 의원, 한 정책위의장, 한 원내대표, 박 장관,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뉴스1

당정이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 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기초를 '취약계층·지방 우선'에 초점을 맞추기로 공감대를 이뤘다. 또 오는 31일 구체적인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신속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추경의 규모는 약 25조 원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에 정책위의장,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경안 관련 당정협의를 하고 이 같이 합의했다.

한정에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공급망 안정, 지방재정 보장을

위해 2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 방향과 필요한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이 같은 사항을 발표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일단 지역화폐 형태의 민생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확정되지는 않았다"면서 "피해가 많은 많은 서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방 우대 기준, 그리고 어려운 계층에 조금 더 지원될 수 있는 방식"이라며 "지역화폐, 민생 안정 지원은 그 과정에서 더 충격이 큰 계층에 지원을 한다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세부 사항은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할 때 보고 받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선별(지원의) 대상을 하위 몇퍼센트로 할 것인지와 금액의 문제는 정부 최종안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 지원 차원에서 취업 및 구직 지원 패키지, K뉴딜아카데미 신설, 국민취업 지원제도, 청년 창작·창업 활동 지원 등을 추경안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서민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 에너지 바우처,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도 확대한다.

고유가 대응책으로는 석유비축물량 확대 및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사업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석유 비축 물량 확대 및 나프타(납사)의 안정적인 수급, 희토류와 요소 등 핵심 전략 품목의 안정적인 공급을 추경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태양광 등 가정용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다. 이를 위해 가정용 태양광 보급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도 재추진된다.

이소영 의원은 "과거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당시 배란다 태양광 보급 사업이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대된 바 있는

데 여러 정치적 변화로 사업이 축소되거나 사라졌다"며 "이번에 대폭 신규로(예산) 반영해 대도시 국민도 1가구 1태양광을 이용하면서 스스로(에너지) 생산을 자립하는 내용을 담으려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사업도 확대된다. 이에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일정 횟수 이상 사용하면 사용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K-패스'의 환급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도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최소 보증금 예산, 홈플러스 사태 등과 관련한 임금체불 조기 종료를 위한 체불임금 청산 지원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문화·예술·관광 분야 선제적 지원 확대도 논의에 포함됐다.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본 기업과 산업 위기 극복 및 에너지 신산업 전환·공급망 안정화에도 추경 예산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한정에 정책위의장은 기업 지원과 관련해 "자금 검색을 해소하고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수출 정책 금융이 추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며 "중동 전쟁으로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 위기 지역의 기업대상 맞춤형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정청래 "민주당 필승카드"

김부겸 대구시장 출마 촉구

김부겸 "30일 입장 발표할 것"
민주, 대구시장 후보 추가 공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만나 "대구에는 무엇이든 다 해드리고 싶다"며 6·3 지방선거 출마를 요청했다. 김 전 총리는 오는 30일쯤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김부겸 전 총리와 회동을 갖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 대구 선거를 이길 필승 카드는 김 전 총리밖에 없다"며 "계속 삼고초려를 했고, 더는 시간상 미룰 수가 없어 공개적으로 요청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오랜 꿈이기도 했던 지역 구조 타파, 국민 통합을 위해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꽃길을 마다하고 대구에 갔다"며 "그런 정신을 이번에도 심분 발휘해 주십사 절박한 심정으로 요청한다"고 했다.

또 "제가 대구에 필요한 것이라면, 또 우리 총리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해드립니다' 센터장이 되고 싶은 심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 전 총리가 결단해 다시 한번 용기 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현재 대구 상황에 대해 "수십년간 국민의힘이 사실상 장기집권을 하고 있는데, 16개 광역 단체 중 제일 잘산다고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낙후되고 정체된 도시"라고 지적했다. 이어 로봇 수

도, 수성 알파시티 등 대구 발전 구상을 거론하며 "그런 것을 하나하나 대구에서 대구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꿈이 있다. (김 전 총리가) 앞장서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다"고 요청했다.

정 대표는 "대구에 또 한번 나가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이 당대표로서도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도 솔직히 있고, 미안한 마음도 있다"면서도 "더 큰 가치를 위해 총리가 결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에 김 전 총리는 "국민 통합,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이 문제를 보고 있다는 말씀에 감사하고 든든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총리는 당 안팎으로부터 대구시장 출마 권유를 오래도록 받아왔다. 하지만 출마 결심을 내리지 않았고, 정 대표가 이날 직접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이다.

김 전 총리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주말 중 양해를 받아야 할 수도 있어서 조금 더 대화를 나누고 다음 주 월요일(30일)에 입장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정 대표에게) 약속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전 총리 출마 일정에 맞춰 공천 준비를 미리 착수하는 모습이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내일(27일) 공천관리위원회 회의가 있는데, 대구시장 후보에 대한 추가 공모를 할 것"이라며 "결단하시면 추가 공모에 응하실 것"이라고 했다.

/서예진 기자



DB손해보험과
안전, 건강, 사랑을

함께,
미약속
기적

나에게 맞는 간편건강보험

참좋은운전자보험

팻들리 반려견·반려묘 보험



QR코드를 스캔해
상품을 확인하세요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 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171954호(2026.02.26~2027.02.25)

*본 광고는 AI를 활용한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AI가 전기를 많이 먹는다는데, 갑자기 정전이 오면?”
“이 많은 차들을 움직일 에너지는 영원할까?”
“우리 아이들이 쓸 에너지는 남아있을까?”

세상이 던지는 질문은
앞으로 더 복잡해지겠지만
늘 그래왔듯 우리는 답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보다
모두의 평범한 삶들이 더 빛날 수 있도록



세상이 에너지를 물을 때
이노베이션으로 답하다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대주주 지분율 제한 등 폐지 주장

‘가상자산 기본법’ 입법 새 쟁점 야당, 가상자산 소득 과세 폐지 논의 미국도 가상자산 ‘디지털상품’ 분류 ‘증권거래’ 기반 규제시 경쟁력 하락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당초 1분기 내 입법절차 돌입을 목표로 했던 정부와 여당의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가 하반기로 밀려나면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 과세 폐지 등 가상자산 관련법의 향방이 주목된다. 미국의 경우 ‘클래리티법’에 거래소의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하면서 국내 입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기본법’ 입법 제동

26일 정치권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민주당은 1분기 내 입법절차 돌입을 목표로 했던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기본법)’ 논의를 순연했다. 중동사태 이후 국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대주주 지분 제한’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도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당초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했던 입법 시계도 하반기까지 밀려났다.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국헌법학회 세미나에서 김명식 조선대학교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뉴스시스

정부와 여당이 주도했던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에 제동이 걸리자 입법 방향성에 관심이 쏠린다. 야당은 내년 초로 예정됐던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간담회’를 주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대표가 참석했으며,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 소득 과세 폐지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당초 가상자산 거래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지난 2020년 마련됐다.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거래 수익금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다만 가상자산을 규율하는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과세는 두 차례 유예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뒀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글로벌 정합성을 전면 폐지를 위한 근거로 제시한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디지털상품’으로 분류했는데, 보다 엄격한 ‘증권 거래’에 기반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을 낮출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식시장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당초 지난 2025년 1월부터 주식시장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최종 폐지됐는데,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만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 ‘지분 제한’ 위헌 소지…美 법안도 변수

이달 초까지 주요 입법 쟁점이었던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 제한’도 재부상했다. 당초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정부안에 포함됐던 해당 내용이 과잉금지원칙과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기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한국헌법학회는 최근 세미나에서 “민간 기업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후적으로 소유권이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헌법적 시각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가상자산의 규제 기준과 역할을 명확히 하는 미국의 ‘클래리티법(Clarity A

ct·명확화 법안)’도 변수다.

지난해 7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지니어스법(GENIUS Act)’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발행 주체의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다만 거래소의 이자지급은 명시하지 않은 만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거래소는 간접적인 이자지급을 통해 거래를 활성화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미 상원은 클래리티법의 새로운 초안에 가상자산 거래소가 스테이블코인 잔액에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국내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논의를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에 포함해 진행중인 만큼, 국내 입법 방향성에도 해당 내용의 반영이 불가피해졌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입법 우선순위가 밀려나면서 지방선거 이후에야 관련 입법 절차가 재개될 것”이라며 “규제 불확실성으로 국내 가상자산 업계의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는 만큼, 입법에서는 관련 논의가 이른 시일에 결론을 내기를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연임... 2기 체제 출범

오는 2029년 3월까지 3년 연임 선임 사외이사에 박종복·임승연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사진)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선임되며 3년 연임을 확정했다.

신한금융은 26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제25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진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통과시켰다. 진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9년 3월까지다.

진 회장은 이번 의결로 오는 2029년 정기 주주총회 때까지 신한금융을 이끌게 됐다. 진 회장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 ▲지속가능 이익 기반 마련 ▲내부통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투자자 소통 강화 등을 인정받아 큰 이견 없이 무난하게 연임에 성공했다.

신한금융은 진회장의 회장 연임을 추천하며 “지난 3년간 신한금융 회장으로서 균형감 있는 위기 관리와 사업 추진 역량을 발휘해 역대 최대 손익을 달성하는 동시에 디지털 신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며 “그림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밸류업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립·이행해 기업 가치와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제고했다”고 말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 선임 사외이사로 박종복 전 SC제일은행장과 임승연 국

민대학교 교수가 신규 임명됐다. 과수근·김조설·배훈·송성주·최영권 등 5명의 사외이사는 재선임됐다.

자본준비금 9조9000억원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도 가결됐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말 기준 9조 8659억 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해 향후 2026년 결산 이후 비과세 배당 재원으로 활용한다. 개인 주주는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되지 않아 배당금의 100%를 수령할 수 있다.

전자 주주총회 도입 안건도 주총 문턱을 넘었다. 상법 개정시행에 따라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도 주주총회를 통과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동양생명 대구지점 직원들이 포즈를 취했다. /동양생명

동양생명 대구지점, 목표 달성률 118% 달해

설계사 52명... 8개월간 24명 위촉 100차월 베테랑 설계사 14명 근무

동양생명 대구지점이 안정적인 조직확장세를 바탕으로 전사의 전속 채널역량 강화 전략을 현장에서 충실히 뒷받침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동양생명 대구지점은 지난 2025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안정적인 인력 확충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대구지점 소속 설계사는 총 52명으로, 지난해 5월 대비 19명 늘었다. 특히 최근 8개월간 신규 위촉된 설계사만 24명에 달한다.

양적 성장은 실질적인 영업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기준 대구지점의 보장성 월납 초회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2배가량인 101% 증가했다. 특히 지점 목표 달성률 역시 2024년 104.8%에서 2025년 하반기부터는 평균 117.6%까지 치솟는 등 양적 팽창에 걸맞은 내실 있는 질적 성장을 동시에 이뤄냈다는 평가다.

도약의 배경에는 지역 밀착형 교육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의 높은 브랜드 신뢰도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보험학교’는 예비 설계사들에게 전문 지식과 직업적 비전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창구가 되고 있다. 여기에 매니저들의 ‘일일 밀착 코칭’과 세

심한 활동 관리가 더해지며 신인 설계사들이 초기에 정착하는 ‘성공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했다.

탄탄한 육성 시스템에 더해진 ‘세대간의 조화’는 지점의 조직력을 더 견고하게 만든다. 대구지점에는 100차월 이상 활동한 베테랑 설계사가 14명에 달한다. 이 중 5명은 동양생명에서만 30년 이상 근무한 ‘살아있는 전설들’이다. 이들이 보유한 풍부한 노하우가 신인 설계사들의 패기와 결합하면서, 서로의 강점을 배우고 나누는 건강한 지점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조직의 내실을 다지는 데는 하민수 지점장의 리더십도 한몫했다. 2025년 부임한 하 지점장은 ‘자기주도적 영업 문화’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설계사 스스로 주간 활동을 분석하고 프로세스를 점검하도록 독려해 자발적인 활동량 증대를 이끌어냈다. 지점 차원에서 주 2회 상품 및 실무 교육을 지원해 현장의 전문성을 꾸준히 뒷받침하고 있다.

대구지점은 향후 동양생명을 넘어 지역을 대표하는 보험금융 거점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하 지점장은 “단순한 실적을 넘어 고객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

빈대인 회장, BNK금융 3년 연임 성공

경기문화 속 안정적 실적유지 성과

BNK금융지주는 26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개최한 주주총회에서는 빈대인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이 통과되며 빈대인 2기 체제가 공식 출범했다. 빈 회장은 지난 2023년 취임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와 경기 둔화 등 복잡한 경영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하고,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기반을 구축한 평가를 받아 재선임됐다. 빈대인 회장은 오는 2029년 3월까지 BNK금융을 이끈다.

이사회 구성에서도 변화가 이뤄졌다.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사외이사 전체 구성의 절반 이상을 주주가 추천한 인물로 전면 배치해 이사회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 BNK금융지주는 주주의견이 경영에 보다 충실히 반영되는 구조를 마련하고, 지배구조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주환원 정책도 지속한다. BNK금융지주 이사회는 이날 주주총회에서 1주당 375원의 결산배당을 승인했으며, 지난해 분기배당을 포함한 연간 총 배당금을 주당 735원으로 확정했다.

BNK금융지주 관계자는 “이번 주주총회 결과는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전략과 이사회 중심 경영에 대한 주주들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서울 아파트가격 0.06% ↑ 8주만에 상승폭 소폭 확대

서울 집값 상승률이 8주 만에 소폭 확대됐다. 2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넷째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05%)보다 0.06% 올랐다. 지난 2월 첫째주부터 둔화세를 유지하던 서울 집값이 8주 만에 상승폭을 키운 셈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국지적 상승 거래가 발생하는 지역과 부동산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지역이 혼재한 가운데 서울 전체 매매가격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강남 3구는 여전히 약세를 보였다. 강남구(-0.17%)는 압구정·개포동 위주로, 서초구(-0.09%)는 반포·빙배동 위주로 집값이 떨어졌다. /성채리 인턴기자

삼성전자, 생활가전 ‘속도 혁신’... “세탁·건조 69분 완료”

2026년형 비스포크 AI 콤보 출시
진동소음 저감 등 AI 기능 고도화
신혼부부 특별 구독 서비스 마련

“2026년형 비스포크 AI 콤보는 세탁 25kg·건조 20kg의 국내 최대 용량을 구현하고, 세탁·건조 시간을 69분으로 단축했다.”

성종훈 생활가전(DA)사업부 상무는 26일 서울 삼성 강남에서 열린 일체형 세탁건조기 ‘2026년형 비스포크 AI 콤보’ 출시 미디어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열교환기에 ‘부스터 열교환기’를 추가 적용해 제습 효율을 높이고 단독 건조기에 준하는 성능을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신모델에는 히터를 활용해 건조 초기에 내부 온도를 빠르게 상승시켜 효율을 높이는 ‘하이브리드 히트펌프’ 건조 방식에서 한단계 진화한 ‘프리히트’ 방식이 적용됐다. 새로운 프리히트 방식은 세탁 탈수 단계에서부터 내부 온도를



(왼쪽부터)성종훈 DA사업부 상무, 임성택 한국총괄 부사장, 김용훈 한국총괄 CE팀장 26일 서울 서초구 삼성 강남에서 열린 2026년형 일체형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 출시 미디어 브리핑에서 질의응답을 받고 있다.

높여 더 신속한 건조를 구현한다.

겨울철 건조 성능 저하 문제에 대한 개선도 강조했다. 성 상무는 “비스포크 AI 콤보는 독자적인 하이브리드 히팅 기술을 통해 온도가 낮음을 감지하면 미리 콤프레셔를 예열하여 겨울철에도 건조 시간이 길어지는 단점을 혁신적으로 보완했다”고 했다.

대규모 언어 모델(LLM) 기반으로 한

총 고도화된 ‘빅스비’도 탑재됐다. 사용자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제품을 제어할 수 있다.

이외에도 ▲옷감의 무게와 종류, 오염도를 감지해 최적의 세탁과 건조를 알아서 수행하는 ‘AI 맞춤+’ ▲바닥을 감지해 고속 회전 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최적화하는 ‘AI 진동소음 저감 시스템’ ▲세탁, 건조가 끝나면 자동으로 문



2026년형 비스포크 AI 콤보. /차현정 기자

이 열려 내부의 습기를 배출, 냄새 걱정 없는 쾌적한 상태를 유지해주는 ‘오도 오픈 도어+’ 등 차별화된 기능을 두루 갖췄다.

삼성전자는 특히 신제품을 앞세워 신혼가전 시장 공략에 나선다. 신혼부부 맞춤형 혜택을 확대해 AI 가전 구매 부담을 낮추고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혼부부를 위해 특별 구독 서비스도 마련했다. ‘AI 구독클럽’으로 혼수 가전을 구독한 신혼부부 대상으로 ▲맞벌이 신혼부부를 위해 평일 저녁이나 주말 등 원하는 시간에 맞춰 가전을 설치할 수 있는 맞춤 설치 서비스 ▲이사 후 재설치 등의 특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전에는 냉장고·TV가 신혼가전의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세탁건조기로 바뀌고 있다”며 “혼수 시장을 적극 공략해 삼성전자의 AI 가전을 더 빠르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 부사장은 “소비자들이 세탁기 제품 중 콤보를 선택하는 비중이 2024년 35%에서 지난해 46%, 올해는 6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제품은 색상은 다크스틸, 실버스틸, 그레이지, 화이트, 블랙캐비어 등 5가지로 출시된다. 가격은 사양에 따라 319만 9000원~429만 9000원이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구광모, AX 실행 강조... “빠르게 성과 축적”

(LG그룹 회장)

LG그룹 사장단 회의

그룹 미래 성장축으로 ‘AX’ 지목
경영진 주도 구조적 혁신 가속화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인공지능 전환(AX)을 미래 성장축으로 지목하고 빠르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26일 LG에 따르면 구광모 회장은 지난 25일 서울시 중구 남산리더십센터에서 주요 계열사 사장단 40여 명이 참석한 ‘사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경학적 불안 고조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수(常數)가 된 상황에서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미래 체력’을 기르기 위한 전략적 해법을 모색했다.

구 회장은 AI에 의한 산업 구조의 변화를 전기와 인터넷의 도입에 견주며 “AI는 단순히 효율성과 생산성을 개선시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25일 서울 중구 남산리더십센터에서 열린 사장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는 도구가 아닐 것”이라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이며, 완벽한 계획보다 빠른 실행이 필요하기에 사업의 임팩트

가 있는 곳에서 작은 것이라도 빠르게 실행해 성과를 축적하고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AX는 특정 조직만의 과제가 아닌, CEO와 사업책임자가 직접 방향을 잡고 이끌어야 할 과제”라며 사장단의 분명한 선택과 강력한 실행을 주문했다.

사장단은 예측 불가능한 시장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현재의 효율을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 구조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AX를 미래 경쟁력의 본질로 규정하고, 속도감 있는 실행력이 핵심이라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LG 사장단은 경영진 주도의 명확한 목표 설정과 신속한 실행을 바탕으로 설계부터 생산, 마케팅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AX를 활용한 구조적 혁신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양성운 기자 ysw@

정기선 회장, 베트남 현장경영 ‘구슬땀’

(HD현대)

현장 설비·안전 시설물 점검

HD현대는 정기선 회장이 지난 24~25일 베트남을 찾아 HD현대베트남조선과 HD현대에코비나를 방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0월 회장 취임 이후 다섯 번째 현장경영 행보다.

정 회장은 지난 24일 베트남 중남부 칸호아성에 위치한 HD현대베트남조선을 방문해 야드를 둘러보고, 건조 중인 석유화학제품운반선(PC선) 공정을 점검했다. 현장 관계자들에게 공정 준수율과 작업상 애로사항을 물었으며, 작업장 안전관리도 당부했다.

이어 25일에는 베트남 중부 다낭에서 남쪽으로 약 120km 떨어진 지역에 위치한 HD현대에코비나를 찾았다. 탱크 제작 공장 건설 현장과 항만 크레인, 액화천연가스(LNG) 모듈 생산 공장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안전 점검과 위험 요인 발굴에 나섰다.

정 회장은 또 현지 파견 임직원들과



HD현대 정기선 회장이 지난 25일 베트남 중남부에 위치한 HD현대에코비나를 찾아 현장 설비와 안전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다. /HD현대

점심을 함께 하며 타지 생활의 고충을 듣고, 회사 발전을 위해 힘쓰는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정 회장은 “회사 경영의 기본은 현장이고, 모든 문제의 해답도 현장에 있다”며 “현장에 대한 고마움을 늘 잊지 않고, 고민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찾아 여러분과 함께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포스코, ‘산업가스 풀 밸류체인’ 윤곽... 신규사업 본격 추진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전반 진출

포스코가 오는 4월 전남 광양 공장 준공을 계기로 희귀가스 풀 밸류체인 구축에 속도를 내며 산업가스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철강을 넘어 반도체·우주항공·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전반에 필요한 가스 생산·공급 기반을 확보하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히는 모습이다.

포스코는 제철소 운영 과정에서 산업가스 수요가 크다는 점에 주목해 산소공장을 제철소 내부에 설치·운영해 왔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 2021년 산업가스 사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했다. 지

난 2022년에는 국내 유일의 크루드(Crude) 희귀가스 내온 생산을 시작했고, 2023년에는 산업가스사업부를 독립 조직으로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특수가스 시장에도 진입했다.

일반가스 분야에서는 공기분리장치(ASU) 20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산소·질소·아르곤 등을 제철소에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포항 영일만산단 내 5000평 부지에 신규 ASU와 저장설비를 구축해 이차전지 특화단지 입주기업 대상 공급을 시작했다.

희귀가스 분야에서는 지난 2024년 8월 ‘포스코중타이어어솔루션’을 설립했다. 오는 4월 준공 예정인 광양 공장은

제철소 대형 ASU에서 생산되는 크루드 희귀가스를 공급받아 고순도 제품을 생산하는 구조다. 완공 시 국내 반도체 시장 수요의 절반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는 반도체 특수가스 분야에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캄보디아 지분 100%를 인수하고 퓨엠 지분 40%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사염화규소(SiCl4), 프로필렌(C3H6), 저메인(GeH4), 인산(H3PO4) 등 반도체용 특수가스를 국내외 반도체 기업에 공급하고 있다. 포항산업과학기술연구원(RIST)과 협력해 특수가스 및 반도체 소재 개발도 추진 중이다. /유혜은 기자

대한항공, AI 기반 무인기 개발 속도

‘아음속 무인표적기 개발 과제’ 회의

대한항공이 인공지능(AI)을 탑재한 고속 무인표적기를 활용해 군집제어 및 임무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차세대 무인기 개발에 속도를 낸다.

대한항공은 지난 25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방위사업청, 해군, 공군,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음속(음속 이하의 속도) 무인표적기 국산화 개발 과제’ 체계요소조건검토 회의를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1월 아음속 무인

표적기 기체, 조종·통제 장비, 발사대 등 핵심 구성품을 국산화해 해외 구매 표적기를 대체하는 목적의 방사청 과제를 수주한 후 4개월간 연구·개발을 진행했다.

이 무인표적기는 국내 최고 수준인 시속 약 735km급의 비행 성능을 확보했다. 대한항공은 2027년까지 시제기를 출고하고 초도 비행을 완료해 오는 2028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AI) 기술을 탑재해 군집제어 및 임무 자율성을 높이고 임무별 센서와 장비를 모듈화해 장착·운용할 수 있는 개방형 기술을 적용한다.

/양성운 기자

엔씨소프트, 사명 '엔씨'로 변경

신작·글로벌 확장 등 성장동력 강화

주총서 사명 변경안 원안 통과
체질 개선 넘어 실행단계 진입
레거시 IP 확장·신규 IP 확보
모바일 캐주얼 사업확대 추진
AI 기반 조직 개편도 병행

엔씨소프트가 사명을 '엔씨(NC)'로 변경하며 브랜드 리뉴얼을 마무리하고, 체질 개선 이후 성장 전략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

엔씨소프트는 2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R&D센터에서 제29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사명 변경 안건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2020년 CI 개편과 미션 재정립으로 시작된 브랜드 리뉴얼이 절차적으로 마무리됐다.

박병무 공동대표는 주총에서 " 그동안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과 체질 개선에 매진해왔다"며 "이제 약속했던 전략들이 성과로 실현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엔씨는 지난해를 '고성장 전환을 위한 준비기'로 규정하고 구조 개편과 조직 효율화에 집중해왔다. 박 대표는 "과거 관성에서 벗어나 사업 구조를 재정비하고 성장 기반을 다졌다"며 "올해부터는 이를 바탕으로 고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엔씨는 ▲레거시 IP 가치 극대화 ▲글로벌 신규 IP 확보 ▲모바일 캐주얼 사업 확장을 핵심 성장 축으로 제시했다.

박 대표는 "레거시 IP 확장과 신규 IP 확보, 모바일 캐주얼 사업을 통해 예측 가능한 지속성장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엔씨소프트는 2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R&D센터에서 제29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사명 변경을 포함한 주요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엔씨

다"고 말했다.

신규 IP는 글로벌 시장 확대의 핵심이다. 엔씨는 '신도시티', '호라이즌' 등 다수의 신작을 개발 중이며, 외부 스튜디오 협업을 통해 슈팅·서브컬처 등 새로운 장르로 확장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라인업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모바일 캐주얼 사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제시됐다. 최근 관련 개발사 인수를 통해 역량을 확보하고, 데이터 분석과 AI 기술을 결합한 운영 체계를 구축해 개별 IP 성과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엔씨는 성장 전략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AI 기반 조직 개편도 병행한다. '생산성혁신본부'를 신설해 AI 기술을 전사 프로세스에 적용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자원을 콘텐츠 개발에 재투입하는 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주총에서는 임원 보수와 자사주

활용을 둘러싼 주주 질의도 이어졌다. 회사 측은 임원 보수는 성과와 기여도 기반으로 책정되며, 자사주는 직원 동기 부여와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보상 체계라고 설명했다.

또 자사주 활용과 관련해선 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별도 계획이 없을 경우 소각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사명 변경을 포함해 재무제표 승인,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주요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엔씨는 사명 변경을 계기로 체질 개선 단계를 넘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시장에서는 향후 신작 성과와 글로벌 확장 전략이 '엔씨 체제'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vitna@metroseoul.co.kr



metro

네이버·스포티파이, 한국시장 협력 확대

스톡홀름 본사서 전략 파트너십 논의
검색·콘텐츠·마케팅 협력 강화 공감

네이버와 스포티파이 경영진이 스웨덴 스톡홀름 본사에서 만나 한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양사는 기존 협업 성과를 점검하는 동시에 검색·콘텐츠·마케팅 등 전방위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

네이버는 26일 네이버 최수연 대표와 스포티파이 공동 최고경영자인 알렉스 노스트롬, 구스타브 소더스트롬 등이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스톡홀름 본사에서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사업개발과 마케팅 등 양사 주요 실무진도 참석해 협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점검했다.

양사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과 내비게이션 연동 등 기존 협업 성과를 공유하고, 중장기적으로 엔터테인먼트 파트너십을 고도화하기 위한 방향성을 집중 논의했다.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가입자는 스포티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네이버 검색과 지도 기반 내비게이션에서도 오디오 콘텐츠를 연동해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젊은 이용자층에서 나타난 성장세가 협력 확대의 핵심 근거로 제시됐다. 네이버에 따르면 스포티파이 제휴



지난 25일(현지시간) 스웨덴에 위치한 스포티파이 본사에서 네이버 최수연 대표이사(가운데)와 스포티파이 공동 최고경영자 알렉스 노스트롬(오른쪽), 구스타브 소더스트롬이 공동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양사 파트너십에 대해 논의했다. /네이버

직후인 지난해 12월 기준 GenZ 세대의 네이버 멤버십 신규 가입자는 전월 대비 17% 증가했다. 양사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음악·오디오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 결합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사는 향후 검색, 마케팅, 콘텐츠 영역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사용자 편의성 강화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 19일부터 스포티파이에 네이버 소셜 로그인 서비스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이 적용되며 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됐다.

/최빛나 기자

디지털 정보격차 줄고 접근성은 개선

과기부, 디지털포용 주요 지표 발표
취약계층 정보화 수준 5년 연속 상승
웹 접근성 점수 전년보다 3.7점 올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정보격차, 웹 접근성, 스마트폰 과의존 등 디지털포용 주요 지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디지털정보화 수준과 웹 접근성은 개선되고,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감소하는 등 디지털포용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서는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이 일반국민 대비 77.9%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상승했다. 최근 5년 연속 개선 흐름이 이어졌다. 세부적으로 디지털 역량은 65.9%, 디지털 활용은 80.5%, 디지털 접근은 96.6%로 각각 전년 대비 소

폭 상승했다. 계층별로는 고령층 71.8%, 농어민 80.6%, 장애인 84.1%, 저소득층 97.0%로 조사됐다.

웹 접근성 실태조사에서는 평균 점수가 70.4점으로 전년 대비 3.7점 상승했다. 2021년 이후 상승세가 이어졌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이 79.0점으로 가장 높았고, 도매·소매업이 65.7점으로 가장 낮았다. 종사자 300명 이상 사업체는 78.2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접근성이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서는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22.7%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감소했다. 2021년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연령별로는 청소년 43.0%, 유아동 26.0% 순으로 높았고, 성인 22.3%, 60대 11.5%는 전년 대비 감소했다.

/김서현 기자

AIDC 특별법, PPA 허용 놓고 '옥신각신'

비수도권 분산 기대 속 특혜 논란
시민단체·부처 "형평성·기후 역량"

인공지능(AI)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센터(AIDC)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DC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입법을 향한 첫발을 뒀다.

전력 확보 문제로 부처 간 이견이 팽팽했던 법안이 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AI 인프라의 비수도권 분산 배치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지만, 시민단체가 '특혜 패키지'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6일(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관련 법안들을 병합 심사해 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특별법은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전략인프라로 지정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부지 및 용수 확보 등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업계가 주목하는 대목은 '전력 직접구매계약(PPA) 특례'다.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AI 데이터센터가 한국전



지난해 8월 준공에 나선 SK텔레콤의 울산 AI 데이터센터 조감 이미지. /SKT

력을 거치지 않고 재생에너지나 LNG 발전사업자와 직접 장기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1GW급 데이터센터 운영 시 연간 전기료만 약 1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PPA 허용은 사업성패를 가를 실질적인 비용 절감책으로 평가받는다.

법안에는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에 한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전력 공급이 원활한 지방 발전소 인근으로 입지를 유도해 수도권 전력 포화 상태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등 업계는 "지방 특례가 현실화되면 수도권보다 지방의 경제성이 부각되어 분산

배치 물꼬가 트일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시민사회의 시각은 냉담하다. 참여연대는 지난 25일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을 'AI 데이터센터 특혜법'으로 규정하고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비수도권이라 해도 환경영향 평가를 더 엄격히 해야 할 데이터센터에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것은 기존 체계를 우회하고 원칙을 허무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LNG 발전사업자와의 직접 PPA 허용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업계는 저렴한 안정적인 전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지만, 참여연대는 이를 "반(反) 기후 정책"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예외적으로 도입된 PPA를 화석연료인 LNG까지 확대하는 것은 탄소중립 목표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정부 부처 중에서도 다른 시각이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특정 산업에만 직거래 특례를 주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KT, 아이폰17서 '5G SA' 서비스 적용

iOS 26.4 업데이트 후 이용 가능
LTE망 거치지 않고 5G망만 단독 사용

KT는 아이폰에서 5G 단독모드(SA)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5G SA가 적용되는 단말은 아이폰17 시리즈 5종으로, iOS 26.4 업데이트 이후 해당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5G SA는 LTE망에 의존하지 않고 5G망만으로 통신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기존 NSA 방식이 LTE와 5G를 함께 사용하는 것과 달리, SA는 모든 신호와 데이터를 5G망에서 처리해 지연시간을 줄이고 배터리 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

LTE망 장애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통신이 가능한 점도 특징이다.

KT는 2021년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통해 5G SA를 상용화한 이후 관련 기술과 운영 경험을 축적해왔다. 이후 5G 음성통화(VoNR) 상용화 등 SA 기반 서비스를 확대해 왔다.

회사는 이번 아이폰 지원을 통해 단말 생태계를 넓히고, 저지연·고신뢰 기반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 SA 기반 기술 고도화를 통해 향후 다양한 산업 분야와 AI 서비스 확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서현 기자



대한홍삼(주)

건강창업의 모든 것!

BH Since 1996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공식 파트너 모집

“대한민국 건강을 지켜온 30년의 노하우,
이제 당신의 성공비즈니스가 됩니다.”

대한홍삼 건강백화점이란?

건강에 대한 모든 해답을 한 곳에!

대한홍삼 건강백화점은 인기 있고, 가성비 좋은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을 한자리에 모아 고객이 직접 체험하고,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결합 매장입니다.

• 취급품목

다양한 브랜드 홍삼 / 다양한 브랜드 건강식품 / 다양한 브랜드 건강기기 / 다양한 브랜드 건강의류
다양한 브랜드 건강용품 / 의료기기 등

• 판매방법

매장 / 웹카탈로그(도·소매) / 복지쇼핑몰(회원판매) / 체험방 / 특판 / 방판

차별화된 경쟁력

- ✓ 무자본부터 대형 매장까지
- ✓ 인기 있고 이윤 높은 건강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
- ✓ 자사 TV방송국(브레인TV)을 통해 많은 시간 지속적으로 광고하고 제품 판매를 지원하는 건강강좌 프로그램 제공
- ✓ 웹카탈로그 시스템 지원 (홍보, 신규영업, 매장상품 관리)
- ✓ 복지몰 시스템 지원 (신뢰 기반의 고객 관리, 수익률 창출하는 새로운 기회)
- ✓ 30년 전통! 헛터그룹 및 협력사의 지원과 노하우의 집약 무료교육

창업비용

최저 창업비 (MIN. 398만원)로
최대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창업유형

유형 1. 매장 창업(일반매장, 건강체험관, 건강카페, 영업센터)
유형 2. 무점포 창업

BH 대한홍삼 [주] **창업문의 : 1522-7585**

www.koreahongsam.co.kr 본사 : 서울시 금천구 가마산로 96
대륭테크노타운8차 601호



Since 1996
헛터그룹
Haetter Group

(주)헛터
(주)헛터방송_브레인TV
(주)헛터라이프_헛터복지몰
한삼장홍삼(주)
대한홍삼(주)

불당 생활권 품은 아산탕정 대단지

아산탕정자이 메트로시티 GS건설

1638세대... 교육·산업·생활 인프라 갖춘 입지 주목

GS건설은 아산신도시센트럴시티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아산탕정자이 메트로시티(A3블록)'를 선보인다.

아산탕정자이 메트로시티는 충남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 일원에 들어선다. 지하 3층~지상 35층, 총 12개 동, 1638가구 규모다. 앞서 공급된 아산탕정자이 퍼스트시티(A1블록)와 아산탕정자이 센트럴시티(A2블록)와 합치면 총 3673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단지를 형성하게 된다.

타입별 분양 가구수는 ▲59㎡A 132가구 ▲59㎡B 34가구 ▲84㎡A 963가구 ▲84㎡B 334가구 ▲84㎡C 66가구 ▲84㎡D 66가구 ▲84㎡E 31가구 ▲125㎡PA 6가구 ▲125㎡PB 5가구 ▲125㎡PC 1가구 등이다.

청약은 오는 3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다음달 1일 1순위 청약을 받는다.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지역 아산시 및 충남, 대전시, 세종시 거주자 중 만 19세 이상이면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시 1순위로 청약 가능하다. 또한 주택을 보유해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해당점 제한을 적용 받지 않는다. 계약금(10%) 완납 후 즉시 전매도 가능하다.

단지는 천안에서 주거 선호도가 높은 불당지구와 맞닿아 있어 불당동 학원가와 상업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아산·천안의 주요 산업단지로의 이동도



편리하며, 탕정·천안 제2·3·4일반산업단지 등도 쉽게 오갈 수 있다. 교육 환경으로는 구역 내 초등학교 부지(예정)가 계획되어 있으며, 탕정중, 탕정고(계획), 충남외고 등으로 통학이 가능하다.

전 세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과 통풍 효율을 극대화했으며, 일부 세대에는 4베이(Bay) 판상형 구조와 3면 발코니 설계를 적용했다.

트리플 역세권 반포에 하이엔드 주거

오티에르 반포 포스코이앤씨

반포역·잠원역·고속터미널역 가까운 입지

포스코이앤씨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1차 재건축 사업을 통해 '오티에르 반포'를 분양할 예정이다.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오티에르(HAUTERRE)'를 적용한 첫 단지다. 오티에르 반포는 지하 4층~지상 20층, 2개 동, 총 251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86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전용면적별로는 ▲44㎡ 13가구 ▲45㎡ 10가구 ▲59㎡ 43가구 ▲84㎡ 11가구 ▲97㎡ 3가구 ▲113㎡ 4가구 ▲115㎡ 2가구 등이다.

단지는반포역·잠원역·고속터미널역을도보로이용

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 입지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잠원IC와 반포IC 접근성도 우수하다. 인근에 신세계 백화점과 센트럴시티 등 상업시설, 서울성모병원 등이 위치하며, 한강공원 접근성도 뛰어나다.

단지 인근에는 원촌초, 원촌중, 경원중, 신동중, 반포고, 세화여고 등이 위치해 있으며, 반포 학원가와 도서관 등 교육·문화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세대 내부에 유럽산 아트월과 세라믹 상판을 적용했으며, 수전은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한 스킨로해, PL 창호는 독일산 프로파인 제품으로 디자인 완성도와 단열 성능을 동시에 고려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자동 이송설비를 전 세대에 적용했으며, 지하에는 세대당 약 1.5~3㎡ 규모의 개인 창고도 마련된다. 약 3800㎡ 규모의 커뮤니티 시설에는 대형 피트니스



스센터와 GDR 스크린골프, 프라이빗 시네마, 실내형 스마트 그린팜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단지 상부 스카이라이프에는 스카िका페가 조성된다.

외관 디자인에도 차별화를 적용했다. 국내 아파트 최초로 입면 디자인형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 패널을 적용해 건물 디자인과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동시에 구현했다.

재건축·신 봄 분양시 '알짜단지'

아파트 분양시장이 성수기를 맞아 선거를 앞두고 있어 건설사들은 '꽃 분양'에 나서는 분위기다. 특히, 도시 물량이 동시에 시장에 나오면 있다. 신축 공급이 희소한 서울을 수도권에서도 규제 지정을 피한 용 나온다. 대전과 아산, 창원 등에서다. 역세권에 위치해 교통과 교육, 을 모두 갖춘 단지들이 선보이며, 차익을 노려볼 수도 있다. 한 부동산 지역은 대출 한도 제한으로 수요가 어 소형 면적대 위주로 청약 통장이 는 지역별 신규 주거단지를 중심으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남 접근성·학군 갖춰... 분상제도 주목

아크로드 서초 DL이앤씨

서이초 맞닿고 교대·양재도 가까워

DL이앤씨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일원에 조성하는 '아크로드 서초'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39층, 아파트 16개 동, 전용 면적 59~170㎡, 총 1161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전용 59㎡ 56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오는 3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다음달 1일 1순위(해당), 2일 1순위(기타) 청약접수를 받는다.

아크로드 서초는 투기과열지구인 서초구에 위치해 추첨제 60%, 가점제 40%로 공급된다. 이와 함께 분양

가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단지 대비 저렴한 3.3㎡당 약 7800만원의 평균 분양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역인 강남역까지 직선거리로 약 600m 거리에 위치한다. 지하철 2·3호선 교대역과 3호선 양재역도 가까운 더블역세권 단지다. 강남을 대표하는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경부고속도로(서초IC) 등으로 접근하기 쉽다. 강남역에서 다양한 광역, 일반버스를 이용하면 서울 및 수도권 어디든 편리하게 이동 가능하다.

아크로드 서초는 서이초와 맞닿아 있으며, 길 건너 편에는 서운중이 위치한다. 편의시설로는 강남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코스트코 등 대형 상업시설을 비롯해 예술의 전당, 강남 세브란스병원, 가톨릭대 성모병원, 한전아트센터 등이 단지 반경 2km 내에 자리



한다.

단지에는 아크로드의 정체성을 담은 '아크로드 컬렉션'이 적용된다. 커뮤니티 '클럽 아크로드'에는 프라이빗 스크린 골프라운지를 비롯해 스크린 골프룸, 실내수영장, 사우나, 피트니스, 필라테스룸, 스포츠코트 등이 갖춰진다.

무학산 인접, 초품아·생활 인프라 강점

메트로시티 자산 데시앙 태영건설

공원형 설계에 교통 개선 기대 더해

태영건설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일원 자산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메트로시티 자산 데시앙'을 선보인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3층, 총 12개 동, 1250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738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타입별로는 ▲59㎡A 221가구 ▲59㎡B 27가구 ▲72㎡A 253가구 ▲72㎡B 114가구 ▲84㎡A 27가구 ▲84㎡B 96가구 등이다. 메트로시티 자산 데시앙은 마산합포구에서 5년 만에 선보이는 신규 공급이자 대규모 브랜

드 단지다.

단지는 바로 앞에 무학초등학교가 위치한 '초품아' 입지로 자녀들의 안전한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인근에 마산중, 마산고 등 명문 학군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다. 무학산과 추산근린공원이 단지를 감싸고 있으며, 일부 세대에서는 마산항 파노라마 조망도 누릴 수 있다.

이와 함께 마산 고속버스터미널, KTX 마산역, 서마산IC 등 주요 교통 거점까지 차량 이용 시 15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다. 부산 부전역에서 김해 장유역을 거쳐 창원 마산역까지 약 51km를 연결하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개통을 앞두고 있고, 가덕도 신공항 고속화 철도와 창원형 트램도 추진 중에 있어 교통여건은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생활 인프라로는 롯데마트,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스타벅스, 창원NC파크 등 주요 생활·문화 시설을 차량 10분 내외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마산의료원과 창원제일종합병원도 가까이에 위치했다.

단지는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에 넉넉한 동간 거리를 확보한 공원형 단지로 조성된다. 지상에는 그린 플라자, 아파라스 가든 등 데시앙만의 프리미엄 조경 설계를 더했다.



도시 곳곳 장에 활력 몰려온다

활기를 찾고 있다. 오는 6월 지방
확실성이 커지기 전에 서둘러 '벗
서울 재건축 단지'와 수도권 주요 신
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비롯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많은
인근과 김포, 광주 등에서 아파트가
도 대규모 브랜드 단지가 들어선
생활 인프라 측면에서 실거주 여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경우 시세
산 전문가는 "서울 및 수도권 선호
들이 눈높이를 한 단계 낮추고 있
더욱 집중될 것"이라며 "지방에서
으로 예비 청약자의 발길이 이어질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도안신도시 내 중대형 중심 설계 돋보여

도안자이 센텀리체 GS건설

용계역 예정 입지에 초·중·고 신설 계획

GS건설이 대전 도안신도시에서 '도안자이 센텀리체'를 내놓는다.

단지는 유성구 일대에 도안지구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도안지구 26블록과 30블록에서 총 229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1780가구다.

블록별로 26블록은 지하 2층~지상 42층, 총 1209가구 중 전용면적 84~99㎡ 946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30블록은 지하 2층~지상 39층, 총 1084가구 가운

데 전용 84~134㎡ 83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공급된다.

도안자이 센텀리체는 도안신도시 2단계 개발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시점에 공급되는 대규모 단지다. 단지 인근에는 초·중·고교 신설이 계획돼 있으며, 대전도시철도 2호선 용계역(예정) 역세권 입지로 향후 개통 시 도심 접근성과 생활 편의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상업 및 유통시설 등이 조성될 계획인 도안지구 중심상업지역도 도보권에 위치했으며, 유성IC, 서대전IC를 통한 호남고속도로 지선 이용이 가능해 세종시 등 광역 이동이 수월하다. 여기에 갑천생태호수공원과 진잠천 등이 어우러진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춘 점도 장점이다.



단지는 전용 84㎡ 이상의 중대형 타입을 다수 선보이며, 남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해 주거 쾌적성을 높였다.

전체동 1층에는 필로티 설계를 적용해 저층세대의 사생활 보호 및 조망권을 확보했으며,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4베이 판상형 구조를 적용해(일부 제외)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다. 더불어 알파룸, 드레스룸 등을 마련해 수납공간과 공간 활용성도 강화했다.

신풍역 더블역세권... 여의도 접근성도 기대

더샵 신길센트럴시티 포스코이앤씨

신안산선 개통 시 여의도 3정거장

포스코이앤씨는 서울 영등포구에 들어서는 '더샵 신길센트럴시티'를 분양한다.

단지는 신길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35층, 16개 동, 전용면적 51~84㎡ 총 2054가구 규모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477가구다. 전용면적별로는 ▲51㎡ 150가구 ▲59㎡ 202가구 ▲74㎡ 72가구 ▲84㎡ 53가구 등이다.

오는 3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1일 1순위 해당지역 청약 진행한다. 청약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세대

주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 2년 이상 및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해야 한다.

단지는 지하철 7호선과 신안산선(예정)이 지나는 신풍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입지로서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향후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여의도역까지 3정거장(예정) 만에 이동이 가능해진다.

교육 환경으로는 도신초를 비롯해 대영중·영남중·대영고·영신고 등이 밀집해 있다. 편의시설은 롯데백화점과 타임스퀘어, IFC몰, 더현대 서울 등 대형 쇼핑·문화시설 이용이 수월하다. 보라매공원과 영등포제1스포츠센터,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등 의료 및 여가 시설도 인접했다.

더샵 신길센트럴시티는 총 2054가구 규모에 걸맞은



더샵만의 특화 설계를 적용했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판상형 중심 설계를 통해 채광과 통풍을 고려했으며, 세대 내부에는 효율적인 공간 구성과 다양한 수납 공간을 적용해 실거주 편의성을 높였다. 단지 중앙에는 녹지와 휴식 공간이 어우러진 네이처테라스, 페르마타가든, 힐링가든 등 다양한 테마 정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경기광주역 도보권, 판교·수서 오가는 교통망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1단지 롯데건설

경강선 이용 편리하고 수서~광주선 추진

롯데건설은 경기 광주시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1단지'를 분양한다.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1, 2단지는 경기도 광주시 양벌동과 쌍령동 일원, 2개 블록에 총 2326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광주시 양벌동 일원에 건립하는 1단지가 먼저 분양에 나선다. 1단지는 지하 7층~지상 최고 32층, 7개 동, 전용면적 59~260㎡, 총 1077세대 규모다. 전용면적별로는 ▲59㎡ 204세대 ▲84㎡ 752세대 ▲114㎡ 113세대 ▲162㎡~170㎡

(펜트하우스) 4세대 ▲170㎡~260㎡(복층) 4세대 등이다.

단지는 경기광주역(경강선)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입지다. 경기광주역에서 기존 경강선을 이용하면 판교역까지 4정거장(약 16분), 강남역까지 8정거장(약 30분 대)만에 이동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수서~광주선은 수서에서 모란을 거쳐 경기광주역을 연결하는 복선전철로 올해 착공을 앞두고 있다. 해당 노선이 개통하면 경기광주역에서 수서역까지 단 2정거장으로 강남역까지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

경기광주역(경강선) 인근에는 '넥서스(NEXUS)광주'로 명명된 대규모 역세권 복합개발이 추진 중이다. 연면적 약 48만㎡ 규모로 상업시설과 산업시설을 중심으로 업무·문화·생활 기능이 집약된 복합단지로 조성



될 예정이다. 자차를 이용한 광역 이동도 수월하다. 단지 인근에 경춘대교가 갖춰져 있어 태전JC, 경기광주JC, 쌍동JC 등으로 접근이 편리하다.

생활 인프라로는 1단지 바로 앞 광주종합운동장이 이달 준공됐다. 다양한 실내 및 야외 운동공간이 있는 시민체육관과 광주시 워터파크도 1단지에서 도보권에 있다.

용인 고림에 공원형 설계로 쾌적함 높여

용인 고림 동문 디 이스트 동문건설

풍부한 녹지공간과 안전한 보행 동선 마련

동문건설은 경기 용인시 고림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용인 고림 동문 디 이스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처인구 고림동 일원에 조성되며, 지하 2층~지상 23층, 6개 동, 전용면적 59㎡, 75㎡, 84㎡ 총 350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로는 ▲59㎡ 74가구 ▲75㎡ 170가구 ▲84㎡ 106가구 등이다.

용인 고림 동문 디 이스트는 고림지구와 바로 인접해 조성되는 도시개발사업지다. 고림지구에 형성된 풍부한 생활 인프라는 물론 용인 구도심의 다양한 편

의시설까지 모두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용인시는 비규제 지역으로 청약 및 대출 규제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도 특징이다.

교통여건은 예버라인 고진역을 이용해 용인 시내 이동이 편리하며, 기흥역에서 분당선 환승으로 판교 및 강남 등 주요 업무지구로 이동할 수 있다. 오는 6월 전 구간 개통 예정인 GTX-A 구성역 이용도 가능하며, 경강선 연장(예정) 등 광역 철도망 확충 사업도 추진되고 있어 교통 여건은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차량으로는 인근 용인IC를 통해 영동고속도로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해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향후 개통 예정인 동용인IC를 이용하면 세종포천고속도로를 통한 서울 접근성도 대



폭 향상된다. 단지 반경 500m 이내에 고진초·중·고가 위치했으며, 하나로마트와 CGV, 이마트, 용인중앙시장, 처인구청 등 생활 편의시설도 인접했다. 삼성전자의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생활권에 위치해 직주근접 수요도 탄탄하다.

이찬진 “불공정거래 수사 강화… 여신 규모, 더 낮게 관리”

(금융감독원장)

특사경, 고발 없이도 인지수사 가능
은행권 신용대출 등 규제 강화 예고
“금융공공기관 이전, 현실 고려해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출입기자단과 월례 간담회를 열고 중동 리스크 대응부터 자본 시장 불공정거래 수사 강화, 가계부채 관리 등 전방위 현안을 점검했다.

◆ 특사경 수사권 확대

먼저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특사경 기능 강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집무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감원 특사경은 증권선물위원회 고발 없이도 직접 인지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조사→증권위→검찰’로 이어지던 절차가 ‘조사→금융위 수사심의위원회→수사’로 단축되면서 사실상 주도적 수사기관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이원장은 “그동안 특사경이 보조수사 기관 역할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조사 단계에서 곧바로 수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며 “자본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일반 수사기관보다 밥값을 월등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출입기자단과 3월 월례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게 잘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일각에서 제기된 전문성 부족 및 과잉 수사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특사경은 현장 조사 경험과 이해도가 높은 인력으로 구성돼 있고, 검찰에서도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다”며 “자문관·과건 수사관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필요 시 검찰과 협업을 위한 법수집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수사권 확대에 따른 통제 장치도 병행 구축한다. 금융위 산하 수사

심의위원회가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금감원 내부에서도 사전 검토를 위한 수사심의협의체를 운영해 이중 통제 구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중동 전쟁 장기화 가능성 대비

금감원은 중동 정세 장기화 가능성을 전제로 금융시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이원장은 “중동 상황 이후 금융시장 변동성은 확대됐지만 주가는 연초 대비 높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고, 회사채 스프레드도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원·달러 환율은 1500원 전후에서 등락

중이며,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174.4%로 규제 수준(80%)을 크게 상회하는 등 전반적인 유동성 상황은 양호한 것으로 진단했다.

다만 에너지 공급망 교란 등 실물경제 충격 가능성을 언급하며 신용공여와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했다. 실제 3월 초 중동 리스크 확대 시 반대매매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나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총량 관리 목표 발표를 앞두고 “여신 증가 속도는 기존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관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은행별 신용대출 한도 설정 등 대출 규제 강화도 예고했다.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과 함께 “불법 확인 시 형사 절차까지 진행하겠다”고 했다.

◆ 업권별 리스크 전방위 점검

업권별 리스크 점검도 병행된다. 해외 사모대출 펀드는 정보 비대칭성과 레버리지 구조로 인해 고위험 상품으로 지목됐다. 특히 보험사 익스포저가 약 28조원 규모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기금·공공기관 투자도 상당한 수준

이다. 다만 총자산 대비 비중이 낮아 건전성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금감원은 미국 운용사를 통해 기초자산 현황을 재점검하고 있으며,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실제 투자자 문의가 증가하는 등 초기 손실 인식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가상자산 부문에서는 빚썸 오지급 사고 검사 결과 내부통제 미흡이 확인됐으며, 이용자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제재를 검토 중이다. 다른 주요 거래소도 합동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보험 분야에서는 상품 설계부터 지급까지 전 과정에 소비자 보호를 내재화하는 방향으로 감독을 강화한다. 단기성과 중심 보상체계를 장기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판매채널 책임성도 높일 계획이다.

한편 금융공공기관 지방 이전(원주 이전)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바 없다”면서도 “금융감독의 현장은 서울에 집중돼 있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국내외 주식거래 폭증… 증권사, 순이익 10조 ‘눈앞’

증권사 61곳, 1년만에 순이익 2.7조 ↑
ROE 10% 달성… 수익성 개선 ‘뚜렷’

국내외 주식 거래가 폭증하면서 증권사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 지난해 국내 주식 거래대금이 63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증권사 순이익은 1년 만에 2조 7000억원 넘게 증가하며 10조원에 근접했다.

금융감독원이 26일 ‘2025년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잠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사 61곳의 당기순이익은 9조 6455억원으로 전년(6조 9441억원) 대비 2조 7014억원(38.9%) 증가했다. 자기자본이익률(ROE)도 7.9%에서 10.0%로 올라 수익성이 뚜렷하게 개선됐다.

이번 실적 개선은 사실상 ‘거래대금

(증권회사 규모별 순자본비율 추이)

구분	24년말	25년말
대형사	1,147.1	1,316
중형사	412.5	470.9
소형사	280.5	300.5
전체	801.2	915.1

단위: % /금융감독원

효과’다. 지난해 국내 주식 거래대금은 6348조원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고, 해외주식 결제금액도 24.3% 늘었다. 이에 따라 수탁수수료는 8조 6021억원으로 2조 3383억원(37.3%) 급증하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수수료 기반 사업 전반도 동반 성장했

다. IB 부문 수수료는 인수·주선 및 채무보증 확대 영향으로 4조 864억원을 기록하며 9.2% 증가했다. 자산관리 부문 역시 펀드 판매와 투자일임 수요 증가에 힘입어 1조 6333억원으로 26.4% 늘었다. 종합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확대에 따라 대출 관련 이익도 4613억원 증가했다.

자기매매 부문에서는 자산별로 희비가 갈렸다. 주식과 펀드 관련 손익은 증시 급등 영향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파생상품 손익은 헤지 운용 손실 확대로 7조 1890억원 감소했다. 채권 손익도 금리 상승 여파로 2조 6636억원 줄어듦에 전반적인 수익 구조의 변동성을 드러냈다.

외환과 대출 부문에서는 추가 이익이 발생했다. 환율 변동 영향으로 외환 관련 손익이 1조 6860억원 증가하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고, 신용공여 확대에

따른 이자수의 증가도 실적 개선에 기여했다.

재무 규모 역시 빠르게 확대됐다. 지난해 말 증권사 자산은 943조 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88조 7000억원(25.0%) 증가했다. 주식 등 증권 보유액이 82조 7000억원 늘었고, 현금 및 예치금도 47조 8000억원 증가했다. 부채는 예수부채와 차입금 증가 영향으로 841조 5000억원까지 확대됐고, 자기자본은 102조 4000억원으로 10조 7000억원 늘었다.

건전성 지표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순자본비율(NCR)은 915.1%로 전년 대비 113.9%포인트 상승하며 규제 기준(100%)을 크게 웃돌았고, 레버리지비율은 693.7%로 전년 대비 37.3%포인트 상승했지만, 규제 기준(1100%) 이내를 유지했다. /허정윤 기자

고환율에 서학개미 주춤… 국내증시 복귀 움직임

해외주식 Click

RIA 주목… 제도 실효성 관건

고환율 여파로 서학개미(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투자 열기가 식어가는 가운데, 해외투자 자금 유턴을 유도하는 국내증시 복귀계좌(RIA)가 주목받고 있다. 다만 제도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2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25일까지 서학개미들은 미국 주식을 6억 4100만달러 순매수했다. 동일 기간 지난 1월에는 44억 800만달러, 2월에는

39억 1700만달러를 사들인 것과 비교해 큰 폭으로 급감했다. 특히 25일에는 4억 7400만달러를 순매도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10원을 넘어서며 17년여 만의 최고치를 보이면서 투자심리가 약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보관 금액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 24일 기준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금액은 1578억 8800만달러로, 올해 1월 말 1680억 1400만달러 대비 감소했다. 1700억 1809만달러로 정점을 찍었던 지난해 10월 말과 비교해서는 약 7% 줄어든 규모다.

이러한 미국 주식 투자 둔화 흐름은

지난 23일 출시된 RIA와 시너지 기대를 키우고 있다. RIA는 해외주식투자 매도 자금을 국내 주식에 재투자할 경우, 요건에 따라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양도세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계좌다.

실제로 RIA 출시 초반부터 수요가 몰리고 있다. 지난 23일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RIA 계좌 출시와 함께 다양한 이벤트와 경품을 쏟아내며 투자자 유치에 나섰다. 결과적으로 증권사별로 수백에서 수천개 상당의 RIA 계좌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한국투자증권은 3영업일 만에 가입자 1만계를 돌파했다고 밝혔으며, 삼성증권도 4일 만에 RIA 계좌 잔고가 300억원을 넘어섰

다고 집계했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흐름에서는 국내와 해외주식의 방향성이 엇갈리면서 대체관계가 강화되고 있다”며 “대체 관계가 이어진다고 하면 반도체 업황이나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한 낙관론을 보유한 개인은 유턴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다만 유턴 확대 가능성은 미지수다. 그는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핵심은 RIA의 도입 여파인데, 제도 성패의 관건은 개인의 유턴 여부이며 결론은 조건부”라며 “올해 해외주식을 순매수할 경우 공제비율이 줄어드는 만큼, 개인 입장에서 해외 투자를 일부 포기할지 혜택 조정을 감내할지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반도체 ETF 개인 순매수 2조 돌파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반도체 TOP10 ETF’의 개인투자자 누적 순매수 금액이 2조원을 돌파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1년 8월 상장한 ‘TIGER 반도체 TOP10 ETF’는 25일 기준 개인투자자 누적 순매수 금액 2조 580억원을 기록했다. 연초 이후에만 1조 6000억원 수준의 개인 순매수가 유입되며 국내 반도체 주요 기업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확인됐다.

지속적인 자금유입으로 순자산도 8조 8353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국내 주식형 테마 ETF 중 최대 규모이자, 국내 ETF 시장 전체에서도 세 번째로 큰 순자산 규모다. /허정윤 기자

한양증권, 현금배당 확대

한양증권이 배당 확대와 이사회 재편을 통해 주주환원과 지배구조 정비에 나섰다.

한양증권은 26일 제71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현금배당과 사외이사 선임 등 상정된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산배당을 통해 한양증권은 보통주 1주당 1600원(시가배당률 6.9%),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인 종류주 1주당 1650원(시가배당률 7.5%)의 현금배당을 확정했다. 보통주 기준 배당금은 전년 대비 67.9% 증가했으며, 배당성향은 연결 기준 37%다. 이에 따라 한양증권은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사외이사로는 강선남 고려휴먼스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신하은 기자

새로운 이야기, 변함없는 따뜻함

뮤직 드라마

불편한 편의점 1

Always

24
Times



2026.4.3 - OPEN RUN **올웨이즈시어터**

원작 김호연 불편한 편의점 (나무옆의자 2021) | 총괄 프로듀서 황기현 | 각색·작사 김하나 | 연출 정범철 | 작곡·음악감독 김은지
무대디자인 주미영 | 조명디자인 정필균 | 음향디자인 안형록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조연출 박수연 | 제작PD 박민서

주최·제작 극단 지우 | 기획 (주)지우컴퍼니, (주)제이엘컬처 | 후원 나무옆의자 출판사 waterfall story 극발전소301 | 예매처 NOL ticket | 문의 02-332-4902

정부, 나프타 수급불안 막는다 수출제한·매점매석 금지 조치

산업부, 나프타 수급안정 팔 건어
금일 0시부터 5개월간 제한 조치
김정관 장관 “물량 최대한 확보”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수급불안이 커진 나프타 확보를 위해 수출을 제한하고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26일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안정을 위한 규정'을 고시하고 27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지역 정세 불안으로 나프타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자 수출물량을 국내로 돌려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5개월간 시행된다.

나프타는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 쓰이는 석유화학 제품 생산의 핵심 원료다. 국내 수요의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중동산 비중이 77%에 달해 이번 중동전쟁의 영향을 클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이미 중동전쟁 직후 무역보험 지원과 대체 수입선 확보 지원을 실시하고, 나프타를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해 공급망 기금을 통한 저리 금융지원도 시행해왔다. 여기에 더해 수급 불



26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2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종량제봉투 자동판매기에 종량제봉투가 많이 비어있다. 중동사태 여파로 석유화학 연료인 나프타 수급 차질이 생기면서 종량제봉투를 비롯한 비닐봉투, 포장용기 등 다양한 1회용품 포장재 품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뉴시스

안 장기화에 대비해 수출 제한과 매점매석 금지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도입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정유사와 석유화학사는 나프타 생산·도입·사용·판매·재고 현황을 매일 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정유사의 주간 반출비율(반출량/생산량)이 합리적 사유 없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할 경우 정부가 판매 및 재고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특히 원칙적으로 모든 나프타수출이 제한되며, 산업부 장관 승인 시에만 예

외적으로 수출이 허용된다. 산업부장관은 정유사에 나프타생산명령을 내릴 수 있고, 특정 기업에 공급을 지시하는 수급조정 조치도 시행할 수 있다.

김정관 산업부장관은 “나프타는 대한민국의 산업발달을 지탱하는 기초 원료인 만큼 수급 불안에 대응해 국외도입 지원 등을 통해 도입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며 “석유화학기업들도 공급망 관리에 책임감을 가지고 나프타도입 등 수급대응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농식품부 “2030년까지 밀 자급률 8% 달성”

2차 밀 산업육성 기본계획 발표
품질·수요 중심 정책방향 전환

정부가 국산 밀의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수요 기반의 산업 구조를 조성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그간의 생산 확대 기조에서 벗어나 ‘품질’과 ‘수요’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제2차 밀 산업육성 기본계획(2026~2030년)’을 수립·발표했다. 국산 밀의 품질 신뢰도를 높여 수요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밀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뒀다.

▲수요에 기반한 효율적 생산 체계 구축 ▲고품질 밀 유통 활성화 ▲소비자 생산을 견인하는 선순환 체계구축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밀 재배면적 5만 헥타르(ha), 생산량 20만 톤

(t)을 달성하고 자급률을 8%까지 끌어 올린다는 구상이다.

생산 단계에서는 우선 평가 기준을 기존 단지 규모와 교육 컨설팅 이행을 중심으로 1등급 밀 생산율과 품질균일도 중심으로 개편한다. 시설·장비 지원과 공공비축 밀 물량 배정 등 각종 정부 밀 관련 사업 예산도 고품질 밀을 생산하는 우수 단지 중심으로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또 현장 컨설팅을 의무화해 재배 역량을 높이고, 기후나 토양과 같이 단지별 세부 특성을 반영한 재배 매뉴얼을 매년 현장에 보급한다. 이를 통해 컨설팅이 밀 생산 농가의 재배 역량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제과·제빵용 종자 가격을 최대 60%까지 낮추고, 밀 비축 시 정부매입 가격도 품질에 따라 차등화해 농가의 고품질 생산을 유도한다. 기후변화 대응 재배

기술 개발과 가공 적성 품종 연구도 병행한다.

유통 단계에서는 지원 기준을 건조·저장 시설 중심에서 ‘블렌딩’ 시설 중심으로 전환한다. 밀 블렌딩이란 단백질 함량과 수분, 재배 지역 등이 다른 밀을 혼합해 균일한 품질을 확보하고 이를 가공업체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 밀 비축 제도 운영을 개편하고 매입 시 품질별 매입 단가 차등 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매입량 배정 기준도 재배면적과 함께 고품질 밀 생산량과 품질균일도를 추가 적용한다.

소비 확대를 위한 정책도 강화된다. 홍보사업의 경우 일회성 소비 촉진 행사 중심에서 벗어나 세대별·수요처별 맞춤형 홍보, 공공 급식 및 먹거리 관련 정부·지자체 사업과의 연계 등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산업부, 미래차 전환 기업 4000억 지원

친환경차 전환촉진 사업 신청 접수

정부가 미래차 전환에 나서는 자동차 부품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4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26일 미래차 전환 투자에 나서는 중소·중견 자동차부품기업 지원을 위한 ‘친환경차 전환촉진 이차보전’ 사업의 2026년도 지원계획을 공

고하고 오는 4월 27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미래차 부품 생산에 필요한 시설투자, 인수합병(M&A), 연구개발(R&D) 자금 대출 시 정부가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업당 최대 100억원 대출까지 중소기업은 최대 2% 포인트, 중견기업은 1.5%포인트의 이자를 최대 8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서울시, 도시철도 신호시스템 손 본다

무선통신 방식으로 혼잡 해소

서울시가 증량이나 노선 신설 같은 물리적 확장 대신 열차 제어 방식 혁신으로 도시철도 혼잡 해소에 나서면서도 안전성과 안정적 운행 기반은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하루 500만명이 이용하는 도시철도의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첨단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CBTC·Communication-Based Train Control)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 혼잡개선 혁신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번 방안을 통해 혼잡도를 평균 20% 이상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증량·급행·노선 신설 등 단편적 대책이 아니라 신호체계 개선을 통해 도시철도 운행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데 있다. 과도한 투자 비용이나 대규모 시설 개선 없이 혼잡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서울 도시철도 일일 통행량은 2021년 386만5000명에서 지난해 492만5000명으로 늘었다. 교통수단별 분담률도 매

년 상승하면서 일부 구간의 혼잡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철도 신호시스템을 기존 ‘궤도회로 방식’에서 ‘무선통신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 대다수 철도노선에서 사용 중인 궤도회로 방식은 선로에 전기 신호를 흘려 열차 위치를 구간 단위로 파악하는 시스템이다. 무선통신 방식은 열차와 관제실 간 무선통신을 통해 실시간으로 열차 위치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열차 움직임에 따라 안전거리를 유동적으로 제어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열차 간 운행간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약 20% 수준의 수송력 향상과 혼잡 완화가 기대된다. 또 신호장애가 자주 발생하는 궤도회로를 사용하지 않아 고장을 줄이고 안정성도 높일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는 혼잡도가 160%를 넘는 우이신선선에 무선통신 방식 신호체계를 우선 적용하고, 이후 9호선과 2호선을 대상으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lhj@

장영진 무보 사장, 수출기업 현장 점검

한솔제지 방문… 지원방안 논의

중동 정세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수출기업 현장 점검에 나섰다.

무보는 장영진 사장이 26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솔제지를 방문해 중동 사태에 따른 수출 애로를 직접 점검하고 긴급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최근 이란 사태와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로 수출 환경이 악화되면서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한경록 한솔제지 대표는 “호르무즈 봉쇄 여파로 해상 물류비가 급등해 유럽과 아프리카 등 타 지역 수출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며 “펠프 등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영진 사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수출 전선에서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이 26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한솔제지 본사에서 무역보험제도와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무보

무역보험 제도를 활용해 신속히 해결할 것”이라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보는 지난 10일 사장이 총괄하는 ‘이란 사태 비상대책 TF’를 기동하고 계약 취소, 물류 정체, 대금 지연 등 총 50개 기업에서 접수된 72건의 애로사항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경기도,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시행

85개 기관 에너지 위기극복 동참

경기도가 원유 자원안보 위기 ‘주의’ 단계 경보발령에 따라 도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기존 정부 지침에서 제외됐던 출자·출연기관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 기관에 실행계획 제출을 요청했다. 도내 출자·출연기관 24곳을 포함해 남부청사·북부청사, 직속기관, 사업소, 지방공기업 등 총 85개 기관이 이번 5부제에 참

여한다.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는 3월 25일 0시부터 시행됐다. 적용 대상은 경기도청과 경기융합타운 내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약 4310대다. 시행 첫날, 경기도는 차량 출입 게이트 6곳에 30여명의 현장 인력을 배치하고, 현수막 설치 및 5부제 시행 안내와 제외 차량 스티커 부착을 진행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경고장 배부, 사내 게시판 명단 공지, 출입 통제, 북부점 검 감점 반영, 4회 이상 상습 위반자의 경우 엄중 문책 및 징계 처분 등이 이뤄진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자사주 '정리대상' 인식 확산... 주주환원 속도

유통업계 자본정책 대전환

현대백그룹, 자사주 전량소각
이마트·신세계, 단계적 소각 기초
롯데지주, 524만여주 우선 소각

상법 개정 논의와 정부의 저PBR(주
가순자산비율) 개선 정책이 맞물리면서
유통업계의 자사주 전략과 기업가치 제
고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그동안 자사주를 장기간 보유해 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소각과 축소가 확산되
고, 배당 확대와 지배구조 개선 논의도
함께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법·제도 환
경과 시장의 평가 기준이 함께 작용하며
유통기업들의 자본 운용 방식이 점차 바
뀔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상법 개정 논의
와 맞물려 자사주 보유·처분에 대한 규
율 강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간
기업들은 자사주를 장기간 보유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해 우호지분으로 활용하
는 등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사용해 왔
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사주를 '보유 자
산'이 아닌 '정리대상자산'으로 인식하
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자사주 소각은 발행주식 수를 줄여
주당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동
시에 지배주주의 지분율과 경영권 구조



유통업계의 자사주 전략과 기업가치 제고 움직임이 동시에 변화하고 있다.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기업마다 대응
방식은 다르게 나타난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현대백화점그룹
이다. 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 현대그
린푸드, 한섬, 현대리바트 등 주요 상장
계열사는 보유 자사주 전량 소각 방침을
밝히고 실행에 나섰다. 소각 규모는 약
2000억원대 수준이며, 추가 취득 후 소
각 계획까지 포함하면 최대 3000억원대
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계획이 완료되
면 주요 상장 계열사에서 자사주를 사실
상 보유하지 않는 구조로 전환된다.

이마트와 신세계는 단계적 소각 기조
를 유지하고 있다. 재무 여건과 시장 상
황을 고려해 매년 일정 규모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주주환원 정책과 병행해 속
도를 조절하는 전략이다.

롯데지주는 분할·합병 과정에서 취득
한 자기주식 중 약 5%에 해당하는 524
만여 주를 우선 소각하기로 했다. 전체
자사주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전량
소각 대신 순차적 정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움직임은 상법 개정 논의의
영향뿐 아니라, 정부가 저PBR 기업의
기업가치 제고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과도 맞닿아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PBR 1배 미만
상장사는 전체의 절반 안팎에 달하며, 유통·소비
업종 역시 다수 포함돼 있다.

오프라인 점포 등 유형자산 비중이
높은 산업 특성상 PBR이 낮게 형성되
는 경향이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저
평가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가치 제고 정책, 이른바 '밸류
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저PBR 기업
의 자본 정책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금
융당국 역시 관련 기업 현황을 주기적으
로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유통기업들은 자사주 소각
과 배당 확대, 지배구조 개선 등 주주환원
중심의 전략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흐름이 단순한 주주
환원을 넘어 지배구조 전반의 변화를 촉
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사의 충
실의무 대상이 회사와 주주로 확대되는
방향의 논의가 이어지면서, 이사회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
려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기 때문
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자사주와 배
당, 지배구조 이슈가 이제는 기업가치
를 설명하는 핵심 요소가 됐다"며 "실적
개선과 함께 주주환원 정책을 얼마나 일
관되게 이어가느냐가 시장
평가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롯데리아 돌아온 '불갈비 버거' 5개 매장서 만나보세요

롯데GRS버거프랜차이즈브랜드 롯
데리아에서 2016년 판매를 종료한 샌드
형 버거 불갈비 버거를 특화 메뉴로 재
출시한다.

특화 메뉴로 재출시되는 불갈비 버거
는 차량이용 주문이 가능한 (Drive-Th
ru, 이하 D/T점) 매장 ▲안산D/T ▲인
천연히D/T ▲오산세교D/T ▲영남대D
/T와 서울역사 5개점에서 판매한다.

이는 프랜차이즈 통일화 메뉴 운영
전략에서 매장 운영 형태·상권 등 유형
에 따른 전략적 메뉴 운영으로 각 매장
의 특수성을 활용해 신규 고객 창출을
통한 매장 객수 및 매출 확대 전략이다.

롯데리아는 21년 흥대점의 젊은 세대
및 외국인 등 유동 인구 특성에 맞춰 소
고기 패티와 슬라이스 치즈 각각 3장을
넣은 정통 치즈버거 메뉴 '흥대 치'S버
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점심롯데월드
타워B1점의 특화 메뉴로 통 새우 패티
를 활용한 '월드타워 새우' 2종 메뉴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상권별 특화 메뉴 운영의 효
과를 바탕으로 특화 메뉴로 출시하는
'불갈비 버거'를 매장 유형에 맞춘 특화
점 전용 카운 포장재(기차, 자동차 형
태)를 활용 주문 후 차량 및 기차 내 취
식이 용이하도록 제공한다. /신원선 기자

정관장, 농구·배구 스포츠 현장에서 브랜드 경험 제공

농구·배구단 흥경기서 프로그램 운영
팬 사인회 등 고객 소통기회 확대
배드민턴 일반 동호인과 접점 넓히기도

정관장이 팬 참여형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브랜드 경험을 확장하고 있다. 경
기장 이벤트와 유통 채널 협업을 통해
소비자가 브랜드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접점을 넓히는 전략이다.

프로스포츠 구단과 연계한 현장 중심
활동은 고객 접점을 확대하기 위한 주요
전략 중 하나다. 정관장은 지난 22일 농
구단 '레드부스터스' 흥경기에서 '정관장
브랜드데이'를 운영하고, 관중이 자연스
럽게 브랜드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
여형 콘텐츠를 선보였다. 경기장 외부에
서는 발판 스탬퍼를 활용한 'GLPro 혈
당 제로 챌린지'를 진행해 목표 달성 시
경품을 제공했으며, 경기 중에는 제품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22일 안양 레드부스터스 흥경기장 GLPro 혈당 제로 챌린지 부스에서 소비자가 이벤트에 참여하고 있다. /KGC인삼공사

지난 2월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배구단 '레드스파크스' 흥경기에서는 V
IP 고객과 가족을 초청해 코트 투어, 배
구 체험, 선수단 사인회, 전문 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경기장을
브랜드 경험 공간으로 활용했다.

일 흥경기 종료 후에는 레드멤버스 회원
251명을 대상으로 선수단 팬 사인회를
진행해 고객과의 직접 소통 기회를 확대
했다.

경기장 밖에서도 스포츠 마케팅은 이
어진다. 정관장은 롯데백화점 평촌점과
협업해 3월 한 달간 레드부스터스 컬레

버레이션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농구 코트의 체력은 선수에게, 일상 체
력은 팬에게'를 콘셉트로 매장에서 5만
원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스크래치
이벤트를 운영하며, 당첨자에게는 선수
사인 유니폼, 사인볼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생활체육 영역으로도 활동을 확대하
고 있다. 대한배드민턴협회 공식 후원
을 바탕으로 '정관장배 배드민턴 대회'
를 운영하며 일반 동호인과의 접점을 넓
히고,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라이프스
타일 경험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관장 관계자는 "스포츠 현장은 팬
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브랜드 가치
를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접점"이라며
"앞으로도 프로스포츠와 생활체육을 아
우르는 다양한 협업과 콘텐츠를 통해 고
객 경험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올리브영 센트럴 명동 타운' 조감도. /CJ올리브영

올리브영 'K뷰티 중심지' 명동에 초대형 특화매장 열어

서울 명동이 'K뷰티 중심지'로 뜨겁
게 달구질 전망이다. CJ올리브영이 글로
벌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극대화한 초대
형 특화매장을 통해 K뷰티 소비와 산업
성장을 잇는 선순환 체제를 구축한다.

26일 CJ올리브영에 따르면 이날 서울
중구명동에서 '올리브영 센트럴 명동 타
운'이 문을 열었다. 해당 매장은 총 3개
층, 약 950평 규모를 갖춰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올리브영 오프라인 공간이다.

이번 신규 매장의 주제는 '글로벌'로,
외국인 관광객 수요와 쇼핑 동선을 적극
반영했다.

우선 '마스크 라이브러리'에서는 시
트팩, 모델링팩, 버블팩 등을 구비해 외
국인 고객이 가장 많이 구매하는 제품군
인 마스크팩을 다양하게 소개한다. 제형
별, 기능별, 피부 유형별 비교와 탐색이
가능하다.

미용의료 관광 증가에 따른 시술 후
관리를 돕는 제품군도 집중 선보인다.
뷰티 디바이스, 더마 뷰티 등 기능성 제
품 등을 준비했고, 특히 더마 부문에서
국내 브랜드 비중을 확대해 K뷰티 경쟁
력을 높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저당 케이크·단팥빵으로 맛있고 건강하게"

CJ푸드빌 뚜레쥬르 'SLOW TLJ'
신제품 4종 선봬... 카테고리 확장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가 맛
있는 건강빵 'SLOW TLJ' 신제품 4종
을 출시하며 라인업을 한층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이번 신제품은 케이
크, 간식빵 등으로 카테고리를 확장해
일상 속에서 더욱 맛있고 부담 없이 즐
길 수 있다.

먼저 'SLOW TLJ' 최초의 케이크 제
품인 '라이트하게 즐기는 다크 초코 케
이크'는 저당 설계로 당 부담을 낮추면
서도 초콜릿 특유의 깊고 진한 풍미를
그대로 살린 것이 특징이다. 헬시플레
저를 추구하는 소비자들도 맛있고 가볍
게 즐길 수 있다.

뚜레쥬르의 대표 인기 제품인 단팥빵
도 건강빵으로 새롭게 선보인다. 계란,
우유, 버터를 넣지 않은 '쫄득 쫄 단팥

빵'은 쫄득 깊은 향을 가득 담은 쫄득한
빵 안에 무설탕 팥 앙금과 고소한 견과
류를 더해 건강과 맛의 균형을 완성했
다. 담백하면서도 풍부한 맛으로 누구
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저당 단팥빵
이다.

식사빵으로 즐길 수 있는 맛있는 건
강빵도 함께 선보인다. '후르츠 호밀 사
워도우'는 은은한 산미가 매력적인 발
아 호밀 사워도우에 식이섬유와 고소함
을 더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데일리
브레드다. 발아 호밀은 호밀을 싹 틔워
만든 곡물로 고소한 풍미가 특징이다.

여기에 대추야자와 견자두 등 각종 견과
일과 견과류를 넣어 은은한 단맛과 고소
함을 균형 있게 담아냈다.

'올리브 치즈 통파뉴'는 대표 식사빵
인 '캄파뉴'에 올리브와 치즈로 짭조름
한 맛을, 호두와 크랜베리로 고소하고
달콤한 맛을 더했다.

뚜레쥬르는 이번 신제품 출시를 통해
건강과 맛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맛있
는 건강빵'을 일상 속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누구나 부담 없이 맛있게 즐
길 수 있는 건강빵으로 소비자 접점을
넓혀간다는 전략이다. /신원선 기자

‘동물실험 대체’ 정책·투자 속속… 실행단계 향해 ‘한 발짝’

FDA, 초안 가이드라인 공개
인간 기반 데이터 대체 명시
NIH, 인간 기반 연구확대에
2000억 규모 지원계획 발표

오가노이드사이언스·삼바 등
국내 오가노이드 기술 ‘주목’

오가노이드(장기모사체),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동물대체시험법의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국립보건원(NIH)이 이달 동물실험 대체와 관련한 정책과 투자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며, 신약개발 패러다임이 논의를 넘어 실행 단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규제기관과 연구지원기관이 각각 제도와 재정을 동시에 움직이고 있어 인간 기반 시험법 확산이 본격화 될 것이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FDA는 지난 18일 ‘동물실험 대체 방법(NAMs)’ 관련 초안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신약 개발 과정에서 동물실험을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는 기존 인식에



오가노이드(장기모사체),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동물대체시험법 확산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췌GPT 이미지

서 벗어나, 과학적 타당성이 확보된 경우 오가노이드, 장기칩, 세포 기반 시험, 인공지능 등 인간 기반 데이터로 이를 대체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권고를 넘어, 규제기관이 공식적으로 동물실험 대체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FDA는 동물실험이 인간 임상 결과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적하며, 인간 생리

와 유사한 모델을 활용하는 것이 신약 개발의 성공률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NIH는 같은 3월, 동물실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인간 기반 연구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총 1억5000만 달러(약 2000억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지원은 단순한 연구비 확대가 아니라, ‘보완 동물 실험 연구(Complement-ARIE)’ 프로그램의 첫 번째 지원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업계는 이번 NIH의 계획에 ‘표준화’를 명시적으로 포함했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NAMs 기술은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규제 수용성과 데이터 신뢰성 확보가 주요 과제로 지적되어 왔는데, NIH가 직접 표준화까지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은 향후 규제 승인 과정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업계에서는 이번 FDA와 NIH의 조치를 두고 “규제 방향성과 연구 투자 축이 동시에 정렬(alignment)된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이전에도 동물실험 대체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어 왔지만, 규제 수용성과 대규모 공공 투자,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이 동시에 제시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발표를 통해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연구 전략 변화도 빨라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동물실험 데이터를 중심으로 비임상 패키지를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앞으로는 오가노이드 등 NAMs 기반의 인간 기반 데이터 확보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오가노이드 기술에도 기대가 모

이고 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인체 유사 환경을 정밀하게 구현하는 오가노이드 기술을 기반으로 신약 평가 및 재생치료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국내 대표 기업으로 꼽힌다.

강스탬바이오텍은 줄기세포 전문 기업에서 오가노이드로 영역을 확장, 실제 피부 구조를 그대로 재현한 ‘피부 오가노이드’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콜마 계열사인 넥스트앤바이오는 암 환자의 샘플로 오가노이드를 만들어 최적의 항암제를 찾는 ‘정밀 의료’ 플랫폼을 운영 중이며, 인간 유도만능줄기세포(hiPSC) 유래 오가노이드 전문 기업 넥셀은 심장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신약 독성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지난해 삼성 오가노이드 서비스’를 개시하며 위탁개발생산(CDMO) 역량을 오가노이드 영역까지 확장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등 27개 기업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참여하는 K-오가노이드 협의체가 구성된 바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metro

셀트리온, 업계 첫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인증 개별기준 ‘매출 1조’… 성장동력 확보 성과

(청사來 최초)

APEC CBPR·글로벌 CBPR 획득
글로벌 사업 환경 적합 기준 구축
행정적 소모·협상기간 단축 기대

셀트리온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개발한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인증체계인 ‘APEC CBPR’과 ‘글로벌 CBPR’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내 바이오 기업이 해당 인증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PEC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은 APEC 회원국 간 안전한 개인정보 이전과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글로벌 인증 제도다. 이와 동시에 셀트리온이 획득한 글로벌 CBPR은 APEC CBPR 체계를 폭넓게 확장한 것으로, 특정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글로벌 사업 환경에 보다 적합한 보안 기준을 구축했음을 의미한다. 기업 심사와 인증 발급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하고



지난 25일 서울 송파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가락청사에서 진행된 ‘CBPR 인증서 수여식’에서 김수현 셀트리온 정보보호최고책임자(오른쪽)와 황보성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부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있다.

이번 인증은 셀트리온이 글로벌 기술 이전이나 공동연구 등 진행 시 해당 국가나 기업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 검증을 대체하거나 간소화하는 ‘하이패스’ 카드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행정적 소모를 줄이고 협상기간도 단축할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하고 있다.

바이오산업의 개인정보는 글로벌 임상 및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의사, 연구원 등 전문가 정보, 운송에 관여하는 파트너사 담당자 정보 등을 포함한다. 관련 데이터 확보와 관리가 글로벌 비즈니스의 핵심 요소인 만큼, 보안 역량 고도화는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의 주요 기준으로 평가된다.

특히 일본, 싱가포르 등 APEC CBPR 인증을 개인정보 국외 이전 수단으로 인정하는 국가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 현지 데이터 검토 절차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향후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이나 공동연구 시 법적 장벽을 제거하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광동제약, 제53기 정기주주총회
“선제적 리스크 관리로 안정성 유지”

광동제약은 경기 과천시 소재 광동과 천타위에서 제5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공개된 실적에 따르면, 광동제약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1조 6595억원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성장기조를 유지했다. 특히 개별기준 매출액은 1조 110억원을 기록, 창사 이래 처음으로 별도기준 ‘매출 1조 클럽’에 진입했다. 개별기준 영업이익은 약 306억원으로 수익성을 소폭 개선하며 내실있는 성장을 이어나갔다.

박상영 광동제약 대표이사(사진)는 인사말을 통해 “고금리와 환율 변동 등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로 경영 안정성을 공고히 했



다”며, “지난해 제주삼 다수 위탁판매 재계약 을 통해 유통경쟁력을 입증했으며, 망막색소 변성증 치료제 후보물질 ‘OCU400’ 국내 독점 계약 체결 등 신약 파이프라인을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제53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사내이사 선임(박상영)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이재원)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 등 상정된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특히 정관 변경을 통해 독립이사 제도를 명문화하고, 위원회 신설을 추진하는 등 ESG경영의 일환으로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에 나섰다. /이세경 기자

애경산업, 태광그룹 편입… ‘글로벌 뷰티기업’으로 도약

화장품 매출 비중 50% 이상 목표

애경산업이 태광그룹 일원으로 제2막을 연다. 조직 체질 개선과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K뷰티 주도권을 쥐겠다는 포부다.

26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애경산업은 이날 태광그룹 계열사로 공식 편입하며 ‘글로벌 토탈뷰티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애경산업은 ‘화장품’ 중심의 성장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기준 전체 매출의 32% 수준이었던 화장품 매출 비중을 오

는 2028년까지 5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우선 지난해 9월부터 미국 시장에서 출시한 스킨케어 브랜드 시그니과 핵심 성분 스킨케어 브랜드 원성을 집중 육성한다. 또 메이크업 브랜드인 에이지투웨니스(AGE20'S), 루나 등을 더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다.

생활용품으로는 헤어 브랜드 케라시스, 바디 브랜드 사위메이트 및 립센트 등 기존 브랜드를 적극 고도화해 메가 브랜드로 키워낸다는 방침이다.

속도감 있는 전략 실행을 위해 조직구

조도 재단장한다. ▲스킨케어 ▲메이크업 ▲퍼스널뷰티 ▲홈케어/덴탈케어 등을 구축해 기존 사업부를 세분화했다.

채널별, 국가별 맞춤형 마케팅 전문 조직도 신설한다. 각 사업부 마케팅 부문을 지원하며 디지털 전환에도 대응한다.

특히 태광그룹의 섬유·화학 분야 소재 경쟁력과 애경산업의 생활용품·화장품 제조 기술력의 결합은 새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료부터 제품까지 태광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는 복안이다. /이정하 기자 mlee236@

UDCA, 위 절제 후 담석 예방효과 입증

(우르소데옥시콜산)

대웅제약 ‘우루사’ 장기효과 근거 인정

대웅제약이 간 기능 개선제 ‘우루사’ 주성분 우르소데옥시콜산(UDCA) 복용이 장기적인 담석 예방 효과를 갖췄다는 임상 근거를 확보했다.

26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우르소데옥시콜산(UDCA)을 위 절제술 후 12개월간 복용하고 중단하더라도 최대 80개월까지 담석 형성 예방 효과가 지속된다는 사실이 위암 환자 대상 대규모 무작위 임상연구로 처음 입증됐다.

연구 결과, UDCA 복용군은 가짜 약을 복용한 위암군 대비 담석 발생 위험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췄다. 80개월

시점 담석 발생률은 위암군 26.21%에 달한 반면, UDCA 300mg군은 10.00%, 600mg군은 12.83%에 그쳤다. 위암군 대비 담석 형성 비율이 300mg군에서 약 67% 낮았고, 600mg군에서는 약 57% 낮았다.

담석이란 담낭(쓸개)에 생기는 돌 같은 덩어리로, 담즙 성분이 굳어진 것이다.

현재 대한위암학회 진료지침(2024)에서는 위 절제술 후 담석 형성 감소를 위해 1년간 UDCA 투여를 권고하지만, 장기 효과에 대한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 이번 장기 추적 데이터는 향후 진료지침 개정 시 권고 수준을 높이는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하 기자

대한민국 가요 1세대 원조스타 리싸이틀



대전역 앞 아카데미하우스에서 "대한민국 1세대 원로가수 리싸이틀"이
2026년 4월 7일(화요일)부터 매일 원로스타들의 공연으로 펼쳐집니다.

대한민국 1세대 원조스타 리싸이틀



고향 아줌마
이정표 없는 거리
고향이 좋아

매주 금요일 김상진



대머리 총각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
노란샤쓰 입은 사나이

매주 월요일
김상희



나는 행복합니다
이거야 정말
장미빛 스카프

매주 화요일 윤행기



철없는 아내
청춘
낙엽따라 가버린 사랑

매주 목요일
차도균



아버지의 대를 잇는 가수
차승민



매주 토요일 현 당



배호 가요제
대상

매주 수요일
이 호 / 이명주



짐이된 사랑
버팀목
보고싶어요



사회
탤런트 이경영



마술공연



여행사 및 단체관람
문의 1544-3235

현대차·기아, iF 어워드 32개상 수상... 디자인 저력 입증

1954년 시작된 세계 3대 디자인상 더 기아 PV5, 제품 부문 금상 받아 브랜딩·사용자경험 등 경쟁력 증명

현대자동차·기아가 글로벌 디자인 무대에서 대거 수상하며 디자인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현대차·기아는 독일 국제포럼디자인이 주관하는 '2026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금상 1개를 포함해 총 32개 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1954년 시작된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로, 디자인의 독창성과 영향력 등을 종합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이번 수상에서 더 기아 PV5는 제품



2026 iF 디자인 어워드 금상 더 기아 PV5.

부문 최고상인 금상을 받았다. 금상은 전 세계 1만여 개 출품작 가운데 75개에 한 주어지는 상이다.

PV5는 기아의 디자인 철학 '오픈박스 유나이티드'를 기반으로 실용성을 극대

화한 구조와 미래지향적 디자인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외관은 대비를 활용한 전면부와 안정적인 측면 실루엣, 기능성을 강조한 후면 디자인이 특징이다. 실내는 '오픈 박스' 콘셉트를 적용해 목

적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현대차·기아는 제품 부문에서도 아이오닉 6 N, EV4-EV4 해치백 등 총 8개 작품이 본상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브랜딩·커뮤니케이션, 사용자 경험(UX),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실내 건축 등 다양한 부문에서도 다수의 상을 받으며 전반위 디자인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현대차 아이오닉 5를 소재로 한 단편 영화 '밤낚시'는 브랜딩·커뮤니케이션 부문 내 필름과 캠페인 분야에서 동시 수상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동아오츠카, 장병에 포카리스웨트 지원

동아오츠카는 오는 4월 남수단에 파병되는 남수단재건지원단 '한빛부대 21진' 장병 270명을 대상으로 포카리스웨트 분말 약 2000포를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동아오츠카는 물에 타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분말 형태의 포카리스웨트를 제공했다.

/동아오츠카



LS일렉트릭, '2026 GEAN 어워드' 수상

LS일렉트릭은 지난 25일 제주 신화월드에서 열린 '제13회 국제 e-모빌리티 엑스포'에서 '2026 세계e모빌리티협회(GEAN) 어워드' 기업부문 본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LS일렉트릭 충주사업장 G동.

/LS일렉트릭

삼성중공업, 조선소 안전관리 강화

작업중지권 선포식 개최

모바일 앱 신고 후 즉시 작업 중단 손실 시수 보전·협력사 보상 병행

삼성중공업은 '근로자가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작업중지권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작업중지권은 '위험하면 즉시 멈춘다'는 원칙에 따라 모든 작업자의 기본 권리이자 의무로 규정된다.

이에 따라 조선소 내 모든 근로자는 본인 또는 동료의 위험 요소가 확인될 경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한 뒤 즉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다.

삼성중공업은 작업자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판단할 수 있도록 불이익 조치 금지 명문화, 작업중지에 따른 손실 시수 보전, 우수사례 포상 등 제도적 장

치도 강화했다.

협력사의 경우 작업중지로 발생한 손실을 원천이 보전하고 인센티브도 제공해, 근로자가 오직 안전만을 기준으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삼성중공업은 경영의 제1원칙으로 안전을 두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으며, 이번 작업중지권 선포를 계기로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데이터 기반 시스템을 통해 반복 사고를 줄이는 등 무재해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거제조선소 내 통합관제센터를 개소하고,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TV와 드론 순찰, 안전요원용 스마트 헬멧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유혜은 기자 dhahledhale@

'청암히어로즈' 첫 수상자에 김종원 원장

포스코청암재단, 선한 영향력 전파

포스코청암재단은 지난 25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시상식을 열고, 올해 새롭게 제정한 '청암히어로즈'의 첫 수상자로 강원도 인제고려병원 김종원 원장(사진)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청암히어로즈는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서 헌신하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해 온 일상 속 영웅을 상찬하기 위해 마련한 시상사업이다. 기존 포스코청암상 봉사상이 글로벌 사회문제 해결과 이웃 사랑, 사회정의 실천에 기여한 인사와



기관을 시상하는 명예의 전당 성격이라면 청암히어로즈는 삶의 현장에서 공동체의 온기를 지키는 실천가를 지원하는 현장밀착형 시상제도다.

이번 수상자인 김종원 원장은 고려대의대를 졸업한 정형외과 전문의로, 안정된 대도시 생활 대신 인구 3만여명의 의료 소외지역인 강원도 인제를 선택해 25년째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오고 있다.

/유혜은 기자



오스템임플란트, 우크라이나 의료협력 확대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20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트윈타워에 우크라이나 정부 보건의료 담당자와 현지 의료장비 회사 및 국제개발구호기구 관계자들이 방문했다고 26일 밝혔다. 우크라이나 보건부 예브게니 곤차르 차관이 'K5 유니트케어'를 체험하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

LG생전, 여성장애인에 희망의 날개 선물

맞춤 보조기기 지원 참여자 모집

LG생활건강은 오는 4월 10일까지 일상 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여성장애인 날개달기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근로, 구직, 학업 등 사회 활동을 하거나 이를 병행하며 육아 중인 여성장애인을 지원하는 방침이다.

서울·경기 거주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 여성장애인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1인 최대 400만원 안팎으로 수량과 품목 제한 없이 활용 목적에 맞춰서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여성장애인 날개달기 사업에 선정되면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소속 보조공학 전문가의 상담을 거쳐 맞춤형 보조기기를 지원받는다.

/이청하 기자 mllee236@

강석진 이사장, G밸리서 AX 전환 애로청취

(중진공)

찾아가서 해결하는 중진공 간담회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서울 유일의 국가산업단지인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인공지능 전환(AI) 지원 등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애로를 청취했다.

중진공은 26일 서울 구로구 G밸리에 위치한 유비온에서 '찾아가서 해결하는 중진공'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강 이사장을 비롯해 금천구청 김재영 기획경제국장, 그리고 G밸리 입주 중소벤처기업 10개사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인사

◆연세대학교 의료원 ◇의료원 △AI의료사업단장 금기창 △AI의료사업단 정책기획단장·보건의료정책연구단장 김현철 ◇간호대학 △교무부부장 박정옥 △학생부부장 이승은 △연구부부장 김희정 △기획부장 최은경 △간호학과장 박정옥 △김모임간호학연구소장 조은희 ◇보건대학원 △역학건강증진학과 주임교수 김희진 △역학전공지도교수 정금지 △의료경영전공지도교수 이문재 ◇융합보건의료대학원 △부원장 김희진 △융합보건의료학과 주임교수 박소희 ◇간호전문대학원 △교학부원장 최은경 △임상간호전공지도교수 최지연 △중요간호전공지도교수 이향규 △노인간호전공지도교수 이승은 △아동간호전공지도교수 최은경 ◇강남세브

참석자들은 AI 도입 시 초기 투자 비용 부담과 인공지능(AI)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기존 공정과 AI 기술 간 정합성 문제와 정책자금을 비롯한 지원사업 간 연계 필요성을 언급했다.

강 이사장은 "AI 기술이 기업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밀착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중진공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서 지방자치단체, 기업인 단체 등 유관기관과 'G밸리 AI·AX 생태계 조성'을 위한 8자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김승호 기자 bada@

란스병원원 △마취통증의학과장 김현창

부음

▲오원배씨 별세, 오승훈(문화일보 논설위원)·정현(한라대 겸임교수)씨 부친상, 김의숙씨 시부상, 김대오(약사)씨 장인상 = 26일, 제주 서귀포시의료원 장례식장 2호, 발인 29일 오전 7시, 장지 서귀포충훈묘지. 064-730-3710

▲김의식(마리아)씨 별세, 박정홍 박재홍 박순혜 박신영 박민숙 박유향씨 모친상, 장차기 강개선 송태섭 정하택 장모상, 박수완 박수현 박요한 조모상, 장용준 장용욱 강순동 강동길 송지연 송재원 정수재 정유경 외조모상 = 26일 오전 7시30분, 거창장례식장 2층특실, 발인 28일, 장지 남하 지산선영



SKB, 'K-POP 아동문화예술교실' 운영

SK브로드밴드는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LOVE FNC와 협력해 'K-팝 아동문화예술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4일 금천구 문성초등학교에서 'K-POP 아동문화예술교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SKB



동서식품 "노을공원에 푸른 희망 심어요"

동서식품이 지난 25일 서울시 마포구 삼양동 노을공원에서 나무심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식목일을 앞두고 도심 내 훼손된 녹지 공간의 생태 회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기획됐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동서식품 직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동서식품

오늘의 날씨

3월 27일 (금)
음력 : 2월 9일

수도권 날씨
8 ~ 20°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 06:26 | 해질 / 18:50

연천 3/20, 동두천 5/20, 가평 4/21, 파주 4/19, 서울 8/20, 양평 5/21, 용인 7/19, 평택 4/21, 인천 7/15, 수원 7/19

백령도 6/11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중소기업 대통령



김승호의
시선

‘중통령’이라고 불리며 중소기업중앙회를 16년째 이끌고 있는 김기문 회장이 내년 2월 임기까지 소임을 다한 뒤 떠나겠다고 최근 입장을 피력했다.

박수철 때 떠나기로 한 김 회장의 결정에 출입기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박수를 드린다. 중소기업계의 어른, 원로의 한 사람으로 남겠다는 판단에 마음을 담아 응원을 보낸다.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길 바란다.

김 회장은 “남은 임기 동안은 중동 전쟁 등 여러 힘든 환경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이 어렵지 않은 때는 없었다. 그래서 중소기업 대표 단체이자 만능적인 중소기업중앙회를 이끄는 수장의 위치는 엄중한 자리임은 분명하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주도해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한 후 중소기업계에 김 회장이 5번째 임기에 도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넘고 연임을 막는 족쇄가 풀릴 경우 김 회장이 주변으로부터 등 떠밀려 나오는 그림이 그렇다.

실제 일부 인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추진위원회’ 이름으로 “임원 연임 제한 규정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자청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같은 날 중소기업중앙회 노조는 “즉속입법을 즉각 중단하라”며 반대 여론전을 폈다. 중소기업중앙회 주변 인사들도 “연임 제한 폐지”와 “너무한다”는 쪽으로 갈랐다.

국회에서도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맞섰다.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회의록에는 이를 놓고 벌인 의원들간 설전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특정 임원의 장기간 재임에 따른 폐해 방지’를 이유로 과거 도입했던 연임 제한 규정을 바꾸는 것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김 회장의 용퇴 결정으로 중소기업계와 정치권내 논쟁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김 회장은 회장 임기와 관련해 “현행 제도가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회는 중앙회장 임기와 별도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해

‘2회까지만 가능’한 현행 연임 제한 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회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전은 조만간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재 중소기업회 안팎의 분위기로라면 내년 2월 말 예정한 제28대 회장 선거는 추대가 아닌 경선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경선을 했던 과거 제25·26대 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논란이 일었다.

벌써부터 회장 투표권을 가진 이사장과 연합회장들의 색깔이 갈리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차기 회장 선거에서 이들 중 어떤 표를 가져가는게 유리할 것이라는 판세 분석도 나온다.

중기업중앙회는 연간 170억원 가량의 정부 예산을 받고 있다. 모두 국민 혈세다. 조직은 법정단체이자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 있다. 그만큼 공적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회장 선거는 공정하고 투명하고 깨끗해야 한다.

차기 중소기업 대통령은 저성장 고착화와 ‘9980’ 숫자로 대변되는 중소기업 중심 시대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은 물론이고 포용력과 높은 도덕성을 겸비한 탈권위적인 인물을 기대한다. /bada@metroseoul.co.kr

디지털금융과 소비자 불신



기지수첩
안승진
(금융부)

디지털금융은 어느 때보다 활성화됐다. 개인 간 현금 거래는 모바일 환경이 주가 됐고, 명절 용돈도 간편 결제 앱의 송금 기능을 활용한다. 지난해 민생지원금은 간편결제 앱을 통해 지급됐으며, 일부 지자체는 지역상품권을 디지털 상품권으로만 유통하고 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발급 받을 때면 상담원이 실물 카드가 필요한 지 되물어온다.

디지털금융은 활성화됐지만 사용자의 신뢰는 두텁지 않다. 아날로그 금융에서 디지털금융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금융사고가 수시로 발생해서다. 바로 지난 달에는 모 가상자산 거래소

가 이벤트 보상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수십 조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오지급했고, 이번 달에는 모 간편송금 앱 내에서 환율이 절반 수준으로 잘못 적용돼 환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비자의 불신은 금융기관의 평판 저하로 이어진다. 지난 24일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모 인터넷전문은행에 예치한 수천만원이 동 없이 이체됐다는 허위 제보가 확산됐다. 해당 은행은 해당 제보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명시하고 대응에 나섰다. 해당 내용은 하루 만에 200만 명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했다. 예금을 해지한 ‘인증’도 다수 올라왔다. 게시물은 조회수를 통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한 허위 게시글이었지만, 해당 내용에 동조한 누리꾼들은 해당 은행의 계열사에서 최근 발생한 금융사고를 이유로 불신을 퍼뜨렸다.

‘아날로그금융’에서 ‘디지털금융’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금융은 신뢰를 전제로 한 산업이다. 금융기관에는 예측 가능하며, 예방 가능한 금융사고를 최소화해야 할 책임이 있다.

디지털금융은 최근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내부 업무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면서, 직원이 맡았던 업무가 AI에게 넘어가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이미 단순 입·출금이나 상담 업무에 AI를 도입했으며, 최근에는 대출심사나 이상거래 감지 등 금융사고에 취약한 부분에도 AI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금융사고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 데 드는 비용은 신뢰를 지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비싸다. 새로운 ‘과도기’를 지나는 지금이야말로, 금융기관들이 신뢰를 지키는데 힘써야 할 때다. /asj1231@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27일 (음 2월 9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끝이 없고 감이 다소 분명치 못합니다. 60년생 시작을 하거나 깊이 개입하려 들면 더욱 어려워집니다. 72년생 동료들에게 더욱 인정을 받습니다. 84년생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49년생 좋은 일은 주로 집 밖에서 생깁니다. 61년생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추진하세요. 73년생 동북양방에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것입니다. 85년생 사소한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50년생 사방이 다 갈탄 방면입니다. 62년생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귀하의 어려움을 극복하세요. 74년생 소유한 것을 지켜야 할 시기입니다. 86년생 능력 이상의 일에는 참견하지 마세요.



51년생 불행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겠습니다. 63년생 자신감이 더욱 필요한 시기입니다. 75년생 이웃과 더욱 잘 지내도록 하세요. 87년생 미래가 아주 밝고 희망이 더욱 넘칩니다.



52년생 처음은 좋으나 끝이 다소 불안한 하루입니다. 64년생 소원은 무난히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76년생 실천하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하고 신중히 행동하세요. 88년생 술자리는 특히 조심하세요.



53년생 생활을 좀 더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사세요. 65년생 차분한 마음으로 행동하세요. 77년생 힘 자랑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89년생 집 안에서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54년생 감기를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66년생 주변을 항상 주의하도록 하세요. 78년생 아랫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세요. 90년생 느긋하게 기다리면 저절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55년생 이성과 다툼의 조짐이 다소 있습니다. 67년생 큰 길운이 따르는 편입니다. 79년생 뜻하지 않은 행운과 만나게 됩니다. 91년생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니 가속도가 더욱 더해집니다.



56년생 사고판단을 더욱 정확하게 하도록 하세요. 68년생 그동안 노력의 대가를 얻게 될 것입니다. 80년생 칭찬 혹은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92년생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57년생 때가 좋지 않은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69년생 주변이 매우 어수선합니다. 81년생 아랫사람에게서 작은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93년생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거나 너무 들뜨지 마세요.



58년생 지금은 뾰족한 수가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70년생 욕심이 앞서면 결국 그에게 맞는 실패를 하기 쉽습니다. 82년생 저녁 약속은 가급적 피하세요. 94년생 건강을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59년생 친한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세요. 71년생 마음의 걱정을 주변의 친한 사람에게 털어놓으세요. 83년생 조상을 잘 모셔안나 나쁜 일을 면합니다. 95년생 주변에 도움을 청하세요.



김상회의四季 양투아네트와 가짜뉴스

프랑스 혁명의 불길 속에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사람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평가를 받는 인물이 마리 앙투아네트일 것이다.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의 공주로 태어난 마리 앙투아네트는 어린 나이에 프랑스로 시집와서 루이 16세의 왕비가 되었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치적 이유였다. 앙투아네트가 왕비가 되었을 무렵 프랑스는 이미 재정이 흔들리고 있었다. 전쟁 비용과 궁정의 지출에 그동안 쌓인 부채가 나라를 짓눌렀다. 시민들은 세금 부담에 시달렸고 빵값은 계속 올랐다. 시민들의 분노가 가득 찬 상황에서 앙투아네트는 화려한 생활을 즐겼다. 굶주린 시민들은 왕비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앙투아네트를 상징하는 가장 유명한 말은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잖아”일 것이다. 이 말은 화려하게 살던 그녀의 무지와 오만함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 말은 그녀의 말이 아닌 이른바 가짜뉴스였다. 이 문장은 철학자 루소의 저서인 ‘고백록’에 처음 등장하는데, 루소는 어느 고귀한 공주가 이 말을 했다고 기록했을 뿐이다. 프랑스 혁명이 터지기 전부터 이 말은 왕실과 왕비를 비난하기 위한 가짜뉴스로 퍼돌았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마리 앙투아네트는 분노한 시민들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고 가짜뉴스는 미움의 대상이던 왕비의 운명을 결정했다. 그녀는 도덕적 타락의 상징처럼 다루어졌고 결국 단두대에서 생을 마감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시민의 고통을 외면했고 비난받아 마땅한 지배층이었다. 그러나 가짜뉴스가 만들어 낸 가장 유명한 희생자이기도 했다. 오늘날은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말은 순식간에 퍼지고 누군가의 인생은 하나의 가짜뉴스로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역사에 비춰볼 일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X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월드프렌즈를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월드프렌즈를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7		1	3	9	4			
	1		4	2				
		9			8	3		
			8				9	
	9			6				
5		6						
3	1			5				
		7	2		3			
	5	2	8	7				1

1	4	7			2		3	
				7	5	4		
5	2				3			4
		4	6		7	2		
6			5				8	1
		1	4	3				
3		2				6	7	9

1	6	7	2	8	9	5	4	3
8	9	5	1	9	2	2	6	7
2	9	2	9	6	7	8	1	5
2	8	6	1	9	7	2	9	9
7	1	9	2	9	5	6	2	8
6	2	9	8	7	2	5	9	1
5	8	1	9	2	6	9	7	2
9	2	7	8	5	1	5	6	6
9	7	6	5	2	1	9	8	2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88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84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상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보르도, 지금 당장 마셔라(DBY)”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317

프랑스 보르도 샤토 디쌍 에마누엘 크루즈 최고경영자



프랑스 보르도에 위치한 샤토 디쌍(Chateau D'Issan)의 공동소유주이자 최고경영자인 에마누엘 크루즈(Emmanuel Cruse)가 한국을 찾았다. 작년 말 발표된 '2025 제임스 서클링 세계 100대 와인' 가운데 1위를 차지한 곳이다.

“보르도 와인, 묵히 말고 지금 당장 마셔라(Drink Bordeaux Young·DBY).”

프랑스 보르도에 위치한 샤토 디쌍(Chateau D'Issan)의 공동소유주이자 최고경영자인 에마누엘 크루즈(Emmanuel Cruse)가 한국을 찾았다. 작년 말 발표된 '2025 제임스 서클링 세계 100대 와인' 가운데 1위를 차지한 곳이다.

에마누엘은 메트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보르도 와인에 대한 생각을 바꿀 때가 됐다”며 “예전처럼 10년, 20년 숙성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잘 익은 과일과 균형감으로 바로 마시고 즐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설과 중인 말이 바로 ‘DBY’이다.

이번 방한은 아영FBC가 주최한 스페셜 테이스팅 행사를 계기로 성사됐다.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열린 ‘제임스 서클링 그레이트 와인즈 월드’ 중에서도 한국이 유독 젊은층이 많아 인상적이었던 에마누엘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테이스팅 행사 초청에 흔쾌히 응하면서다. 시음장을 찾은 일반 소비자들에게 직접 2022 빈티지를 따라줬으며, 샤토 디쌍에 대한 양조철학과 브랜드 스토리도 전했다.

◆ 보르도 반세기 만의 최고 2022년... 더위 이긴 테루아의 힘

2022년은 보르도 와인 전반적으로 좋았다. 아니 좋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환상적”이었다.

에마누엘은 “2022년은 지난 40~50년을 통틀어도 가히 최고의 빈티지라고 생각한다”며 “보르도는 다른 곳이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한 테루아를 가지고 있어 좋은 기후를 만난다면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와인을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그래도 1위까지 할 줄은 에마누엘도 예상치 못했다. 와인 평가에서 보르도 와인이 1위에 오른 것은 7년 전이 마지막이었다. 그것도 보르도 지롱드강의 오른쪽, 우안의 와인이었다. 샤토 디쌍은 왼쪽, 좌안을 대표하는 산지 마고(Margaux)에서 와인을 생산한다.

게다가 2022년은 덥고 건조했다.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컸던 해다. 기후변화를 극복한 것은 다행이긴 포도나무 그 스스로다.

에마누엘은 “2003년 처음 폭염이 발생했을 때는 포도나무가 잎도 색이 바래고, 포도즙도 거의 나오지 않았다. 반면 2020년 들어서는 고온에도 포도나무가 건강하게 지장이 없었다. 쉬운 해는 아



샤토 디쌍 최고경영자인 에마누엘 크루즈가 지난 18일 서울 반포 세빛섬 무드서울에서 열린 ‘제임스 서클링 톱 100 스페셜 테이스팅’ 행사에서 참석자와 소통을 하고 있다. /아영FBC

“보르도 샤토 디쌍 2022 빈티지 2025 제임스 서클링 선정 세계 1위 과일·균형 좋아 바로 즐길 수 있어 카베르네 프랑·말벡·쁘띠 베르도 추가 아로마·풍미·구조감까지 갖춰

니었지만 포도밭도, 땅도 적응을 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 테루아에 대한 존중·변화를 위한 도전

에마누엘이 샤토 디쌍의 경영을 맡아 이끈 것은 1998년부터다. 포도밭을 전면 재정비하는 것은 물론 어린 나무에서 나온 포도는 구분해서 세컨 와인을 만드는데 쓰는 등 품질 개선에 나섰다.

배수 시스템까지 손을 안댄 곳이 없지만 최근에 가장 큰 변화라면 지난 2020년 포도밭을 더 사들여 품종을 늘

린 일이다. 카베르네 프랑과 말벡, 뿌띠 베르도 등 3개 품종이다.

그래서 탄생한 2022 빈티지는 카베르네 소비뇽과 메를로 각각 65%, 30%에 카베르네 프랑 2%, 말벡 2%, 뿌띠 베르도 1%가 들어갔다. 새로운 품종들의 비중은 5%에 불과하지만 부족했던 부분이 딱 채워지면서 와인의 복잡미를 한층 끌어올렸다.

그는 “이전까지는 까베르네 소비뇽과 메를로 두 품종에만 의존했지만 5가지 품종을 블렌딩하면서 아로마와 풍미, 구조감까지 완벽히 갖추게 된 예시가 2022년이였다”며 “이와 함께 균형과 우아함을 가진 마고 테루아를 그대로 보여주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도전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몇 세기에 걸쳐 레드 와인만 만들던 곳에서 화이트 와인을 내놓기 시작했다.

그는 “전통적인 보르도 화이트가 아니라 프랑스 남부 품종인 비오니예를 비롯해 이탈리아 품종인 베르벤티노도 식재했다”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실험

적인 수준이지만 샤토 디쌍을 넘어 보르도에서도 완전히 새로운 와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첫 화이트 와인의 빈티지는 2024다. 생산량이 1300병에 불과해 판매보다는 와이너리 방문자들이 시음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조만간 1만병까지 늘릴 계획이다.

◆ ‘그레이트 와인’이란... 균형감이 관건

에마누엘이 생각하는 진정한 좋은 와인, 그레이트 와인(Great Wine)을 판단하는 기준은 단 하나다. 균형감이다. 너무 간단한 답에 웃으니 그는 “정말 진지하게(Very serious) 그렇다”고 한번 더 강조했다.

에마누엘은 “이제는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많은 와인을 만들고 있지만 키워드는 결국 균형감”이라며 “어느 특징을 부각시켜 잘 팔리는 훌륭한 제품(Product)을 만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훌륭한 와인(Wine)은 될 수 없다. 그런 와인은 시음(Tasting)은 하겠지만 마시는(Drinking)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균형감을 쉽게 예를 들면 친구들과 잔을 기울였을 때 어느새 다 마셔버린 와인이다. 아직도 와인이 남아 있다면 뭔가 잘못된 거다. 한 모금은 맛날지 몰라도 계속 마시기엔 너무 무겁거나 질리거나 어느 부분이 된다는 얘기다.

샤토 디쌍 역시 더운 기후로 알콜 도수는 높아졌지만 신선한 과일미에 15도 안팎이라고는 전혀 느낄 수가 없었다.

제임스 서클링은 샤토 디쌍 2022를 1위로 선정한 이후 이렇게 평했다. “와인에서 느껴지는 풍부하고 복합적인 과일향은 한 모금 마실 때마다 계속해서 마시게 만들었다. 잔이 비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말은 ‘와인이 어디로 갔지?’ 뿐이었



/smahn1@metroseoul.co.kr



주말은 책과 함께

다시 스며든 파시즘... 미래학자의 경고

“지금 한국을 뜯어고치지 못하면 파시스트가 지배하는 계급사회는 불가피하다. 경제는 침체하고 사회 갈등은 심화될 것이다.”

미래학자 홍성국의 경고다. 그는 신간 ‘더 센 파시즘’에서 21세기 K-구조전환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수축사회 2.0’에 이은 그의 9번째 저서다.

저자는 책에서 수축사회의 엔진을 멈추고 함께 번영하는 이른바 ‘플러스섬’(plus-sum)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한국형 국가 생존전략인 ‘K-구조전환’의 7가지 핵심 설계도를 제시했다.

우선 ▲국가 모델 수립 ▲강력한 민주

주의 재구축 ▲성장 중심 사회 ▲피지컬 AI와 제조업을 결합한 미래형 제조 강국으로의 도약이 포함된다. 또 ▲가짜정보와의 전쟁을 통한 진실의 회복 ▲AI 시대에 맞는 교육 체계 개편 ▲리더와 엘리트의 각성을 통한 ‘사회적 자본(신뢰)’의 재충전 등을 통해 향후 2~3년의 골든타임 동안 문명의 운명을 바꿀 대전환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책은 ‘K-구조전환’이란 새로운 파시즘에 대응하는 전략이라고 했다. 21세기 들어 강력한 독재자에게 의탁하려는 파시즘적 경향이 100년 전보다 더 위협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학술적 엄밀함을 넘어, 실제 우리 일상에서 접하는 현상을 토대로 파시즘의 징후를 읽어 내고 있다.

예로, 민주적 선거를 이용해 집권한 뒤 법률의 허점을 악용하는 ‘법률 전쟁’을 벌이고, 공포와 감시 장치로 저항을 원천 차단하는 식의 사례다. 또 가짜정보를 통해 음모론 사회를 만들고 선전·선동으로 대중의 눈을 멀게 하고, 세뇌 교육으로 정신을 파괴한다. 저자는 조직화된 집단 폭력으로 불안한 사회를 조장하고, 파시스트 간에 글로벌 연대를 추구하는 등의 전략·전술을 폭로한다.

100년 전의 파시즘과 오늘날의 파시즘



더 센 파시즘
홍성국 저음/메디치미디어

을 비교한 통찰이 눈에 띈다. 유사성에 대한 분석이다. 1930년대 독일인과 미국인, 그리고 2026년 한국인의 가상인생 이야기를 통해 시대적 불확실성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대비하고 있다.

특히, 100년 전 파시즘을 불러온 11가지 사회문화적 요인이 현재의 상황과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진단했다. 파시즘의 세계로 급격히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서늘한 경고를 던진다.

책은 “파시즘이 준동하는 시기에...해법을 ‘사회적 자본’의 재충전에서 찾고자 한다”며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란 사회 구성원 사이에 만들어진 신뢰의 네트워크를 의미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저자는 세계의 변화에 발맞춰 한국의 미래를 모색하는 현장형 미래학자다. 1988년 대우증권에 입사해 CEO 자리까지 올랐다. 제21대 국회의원으로 정무위와 기획재정부 위원도 지냈다. 2016년 이후에는 저술, 강연, 기고, 방송출연 등을 통해 대중과 호흡하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메트로 한줄뉴스



▲“美 협상 조율할 ‘안보 사령탑’ 줄가르드는 강경파...혁명수비대 입김 ↑”
▲“이란전쟁? 군사적전이라니까” 트럼프의 ‘단어 설탕’...의회 패싱 꿈수 /사진 뉴시스

▲트럼프 “이란도 협상 간절히 원해...자국민에 살해당할까봐 말 못해”
▲“도교 길거리 점령한 성매매”...日, ‘매수자 처벌’ 규정 도입하나

▲이란대사 “한국은 비적대국...韓선박, ‘美무관’ 사전확인 후 통과 가능”
▲中왕이 “미·이란 협상에 서광”...중동 중재국들과 통화



유통업계
자본정책 대전환
주주환원 속도
나



Life

동물실험 대체
정책·투자 속속
실행단계 전환
L2



밭로 뛰는 '농정 전문가'... 기후 파고 넘어 K-푸드 영토 확장

CEO 와칭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농업 현장이 기후위기의 타격을 받고 있다. 고랭지 배추 재배면적은 20년 전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폭염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면서 농산물 수급 불안은 일시적 변수가 아닌 구조적 위기로 고착됐다. 재배 적지가 사라지고, 농가는 밭을 버리고, 소비자 먹거리가 불안정한 악순환이다. 기후위기는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이 국내에서도 시급하다. 더는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로 부각된다. 지난 2024년 8월 '농업 전문가' 홍문표 전 국회의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으로 부임했다.

의원직 4선을 지낸 홍 사장은 임기 도합 16년의 대부분(14년간)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또 2008~2011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역임한 '현장형 농정 전문가'다. 의정활동 기간 농기계 임대법을 비롯해 면세유 5년 연장법 등 농어민 소득에 직결되는 법안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왔다. aT를 이끄는 그는 '기후 위기 대응 및 식량안보 확보'를 거듭 강조한다. 이와 연계해, 신제품 개발과 K-푸드 수출 확대에 비중을 크게 두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취임직후 TF 가동

홍문표 체제하에서 aT의 기후변화 대응은 전면 가동되고 있다. 홍 사장은 취임 직후부터 현장을 돌며 위기의 무게를 확인했다. 이어 부임한 지 한 달 만에 기후변화 대응 수급 TF(전담반)를 발족했다. 당시 그는

홍문표 aT 사장 프로필

- 충남 홍성 태생
- 건국대 농화학 학사
- 한양대 사회복지정책 석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現)
- 제17, 19, 20, 21대 국회의원
- 국회 농해수위, 예결위원장, 교육위원장
- 국회 한국-러시아 의회외교포럼 회장
- 국회 국회의원 태권도연맹 총재
- 국회 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아시아하키연맹 수석부회장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홍문표 aT 사장(왼쪽에서 세번째)이 지난해 8월26일 강원도 정선 소재 '배추 신품종' 재배현장에서 생육 상태를 살피고 있다. /aT

현장 경험 풍부한 '농업정책 전문가' 의원 임기 대부분 농수산 현장에 헌신

부임 한 달 만에 기후변화 대응팀 꾸려 연구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 체계화 기후변수 뚫고, 식량 안보 확보 앞장

"현장에서 기후문제를 매일 맞닥뜨리고 있는데 국회와 정부만 믿고 있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TF 수준에 머무르지 않았다. 지난해 2월에는 TF를 '기후변화대응부'로 격상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정원 28명 규모의 '기후변화대응처'로 한 계단 더 끌어올렸다. TF에서 부(部)로, 다시 부에서 처(處)로 조직 위상을 단계적으로 높이며 기후위기 대응을 aT의 핵심 기능으로 자리 잡게 했다. 연구부터 생산, 유통, 소비로 이어지는 전 과정

을 체계화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

홍 사장은 지난해 8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세계기후환경포럼'에서 "식량이 곧 무기인 시대에 식량안보 위기는 곧 국가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7대 혁신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농업 현장이 곧 세계시장의 기반

기후위기에 대응해 농업 기반을 유지해 나가는 일은 국가의 중대한 숙제가 됐다. 세계 시장에 나갈 대한민국 농산물이 확보해야 하는 이유에서다.

K-푸드 수출의 뿌리는 결국 전국 각지의 농업 현장일 터. 홍 사장이 기후위기 대응에 그토록 속도를 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농업 기반이 흔들리면 수출의 근간도 함께 무너진다. 홍 사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수출 확대를 하나의 연결된 전략으로 가동했다.

그 위에서 숫자가 만들어졌다. 지난해 농림수산물 수출실적은 135억600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원화로 20조 원에 달하는 규모다. 농식품 단독으로도 역대 처음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

특히 딸기·포도 등 대표 신선식품이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했고, 한우의 경우 중동 지역(아랍에미리트·UAE)에 처음으로 진출하며 새 시장을 열었다. 익산농협의 생크림 찹쌀떡이 대·중소 협업을 통해 미국 시장에서 완판되는 사례도 나왔다. 품목의 다양화와 시장의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K-푸드가 세계 시장에서 일상의 식문화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들이다.

한우의 UAE 첫 수출은 쉽게 만들어진 성과가 아니었다. aT 두바이지사는 2022년부터 현지 수요조사와 제도 분석에 착수했고, 국내 도축장의 할랄 인증 절차를 전방위로 지원했다.

지난해 1월 국내 최초로 황성 소재 도축장이 UAE 정부의 할랄 도축장 인증을 획득하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또 같은 해 6월 두바이에서 열린 K-푸드 박람회에서는 할랄 한우 런칭쇼를 개최해 현지 바이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9월에는 도축장 최종 등록 승인까지 마쳤다. 이후 10월 냉장·냉동 한우고기가 인천공항과 함만을 통해 UAE행 선적을 개시했다.

홍 사장은 이 흐름을 이어 다음 목표로 인구 2억8000만 명의 인도네시아 할랄시장 진출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농수산식품 136억 달러 수출 딸기·포도 등 신선식품 수출 역대최대

중동지역에 한우 진출해 새 시장 열어 할랄 도축장 인증... 제도적 기반 마련

온라인 도매 등 투명한 유통구조 조성 K-푸드 수출지원... 전략품목 육성도

유통구조 개선에도 힘을 쏟았다. aT는 온라인 도매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통해 농산물 유통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왔다. 동시에 직거래 장터를 확대해 농민이 생산한 우리 농산물을 제값에 받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유통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향후에는 '글로벌 NEXT(넥스트) K-푸드 프로젝트'를 통해 권역별 전략 품목을 발굴하고, 민간 기업의 히트 상품 육성을 집중 지원한다. 수출 현장의 어려움에는 '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허브'를 통해 상담 창구를 일원화한다. 아울러 비관세장벽·인증·검역 등의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는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홍 사장은 최근 기후위기 대응 혁신방향이 aT 조직에 뿌리내리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력이 높아져야 농업 기반이 유지되고 그 위에서 K-푸드의 세계화가 지속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외형보다 현장, 구호보다는 실행에 무게를 둔 행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발족한 '기후위기 대응 수급 전담반'



지난해 6월 아랍에미리트에서 개최된 할랄한우 현지 입점 기념행사.



▲레알 마드리드, 음바페 무릎 오진 논란... "사실 아냐"
▲'파이터' 카스트로프, 뮌헨글라트바흐 이달의 선수... 올 시즌 2번째 /사진 뉴시스

▲맨유, 10만 석 '뉴 올드 트래포드' 가시화... 2035년 월드컵 유치 노린다
▲'전설' 차범근 넘는다... 손흥민, 한국 A매치 최다골 대기록까지 '-4'

▲'미국 전쟁' 이란, 북중미 월드컵 준비 계속... 튀르키예에서 구슬담
▲홍명보호 북중미월드컵 '첫 상대'는 누구... 유럽 PO 27일 시작

SI 3대 강국 대한민국을 위해 인재를 키웁니다

LG는 세계 최초 사내 석박사과정 **LG AI 대학원**과
청소년대상 **LG 디스커버리랩**, 청년대상 **LG 에이머스** 등의
SI 교육과정으로 연간 4만 8천 명 이상의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미래, 같이

SI로 세상을 미소 짓게 하는
미래가치를 만듭니다

